

한국문학탐방Ⅲ

발표 자료집

2023
(4월 5일 ~ 4월 7일)

전라북도 일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I. 기본 사항

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i
2. 준비물 및 주의사항	ii
3. 버스 좌석 배정	iii
4. 숙소 방 배정	iv
5.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vi
6. 한국문학탐방 지도	vii
7. 탐방지 정보	viii
8. 보고서 양식	ix

II. 발표 자료

1. 채만식	
1.1 [박세현] 채만식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1
1.2 [김무원] 한 여인의 기구한 삶	2
1.3 [김소은] 하층민과 부정적 인물들을 보여주는 채만식	4
1.4 [정경원] 채만식 『탁류』, 한 여인의 수난사	5
2. 신석정	
2.1 [김진형] 한국 근현대사의 목가적 저항시인, 신석정	6
2.2[유영후] 신석정 시인의 굳건한 의지를 기억하며	8
2.3[이지오] 신석정이 동경하던 그 먼 나라	10
2.4[박민경] 신석정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12
3. 이매창	
3.1 [PHAMTHIHOA] 진흙 위에 향기를 발산한 연꽃	13
3.2[이인준] 슬퍼하며 사랑하며 님을 그리며	14
3.3[이상훈] 신분적 한계 속에서 재능을 꽃피우다	15
3.4[김지원] 사랑을 노래한 이매창의 흔적들	17

4. 서정주

4.1 [NGUYENTHITAM] 서정주 시인 그는 누구인가	18
4.2 [허준희] 서정주 ‘국화 옆에서’에 대한 고찰	19
4.3 [송문규] 서정주의 ‘귀족도’	21
4.4 [김다은] 미당 서정주의 뛰어난 언어구사	22

5. 정극인

5.1 [홍예슬] 이상적인 사대부 정신을 가진 사람	24
5.2 [박요한] 사대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25
5.3 [장예주] 사대부의 가사 문학	27
5.4 [PHUNGTHINHUNG] 무성서원 소개	28

6. 정읍사

6.1 [전예진] 정읍사의 배경 설화	29
6.2 [박선호] 여인의 마음이 담긴 ‘정읍사’	30
6.3 [고진현] 후대에게 전해지는 ‘정읍사’	32

7. 최명희

7.1 [박이삭] 최명희의 흔적을 따라서	33
7.2 [이성민] 소설을 통해 알아가는 혼불의 배경	34
7.3 [심현진] 최명희 문학 속에 담긴 ‘삶’	36

8. 춘향전

8.1 [엄서진] 민중의 서사, 춘향전	37
8.2 [황대중] 전 계층을 아우르는 사랑가	39
8.3 [오한별] 고전의 현대화, 성장하는 춘향	40

I-기본 사항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 신서인 교수님

인솔교수 : 김명준, 이병기, 서은혜, 유인선 교수님

학생회장 : 정경원 (010-3456-6871)

부학생회장 : 박민경 (010-5809-1191)

답사부장 : 정병규 (010-9208-8739)

조교 : 이혜미 (010-7464-3556)

조 번호	조장	조원
1	정경원(18)	김소은(23) 박세현(23) 김무원(23)
2	박민경(20)	김진형(23) 이지오(23) 유영후(23)
3	이상훈(17)	PHAM THI HOA(19) 이인준(21) 김지원(23)
4	김다은(20)	NGUYEN THI TAM(19) 송문규(23) 허준희(23)
5	박요한(18)	PHUNG THI NHUNG(19) 홍예슬(23) 장예주(23)
6	고진현(19)	*김나영(21) 박선호(23) 전예진(23)
7	심현진(21)	*조성빈(18) 박이삭(23) 이성민(23)
8	엄서진(21)	*송민혁(18) 황대중(23) 오한별(23)

조	구분	작가	작품	지역	유적지
1조	현대소설	채만식	『탁류』	군산	채만식문학관
2조	현대시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등	부안	신석정문학관
3조	고전시가	이매창	‘규원’ ‘이화우’ 등	부안	매창공원
4조	현대시	서정주	‘화사’, ‘귀촉도’ 등	고창	미당시문학관
5조	고전산문	정극인	‘상춘곡’	정읍	무성서원
6조	고전시가	-	‘정읍사’	정읍	정읍사공원
7조	현대소설	최명희	『혼불』	남원	혼불문학관
8조	고전소설	-	『춘향전』	남원	광한루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준비물

답사 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 옷과 신발, 세면도구, 개인 약, 우산 등

◆ 주의사항

1. 탐방 중 주의사항

- (1) 인솔자(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 (2) 학교 및 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 (3) 정해진 일정 시간을 엄수한다.
- (4)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 (5) 발표시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발표한다.
- (6) 다른 조의 발표를 경청한다.
- (7) 자유 관람 시에도 안전을 위하여 조별로 모여서 이동한다.
- (8)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 (9) 도로 횡단 시 차량에 유의한다.
- (10)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11)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인솔자에게 빠르게 알린다.
- (12) 도난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 (13) 서로가 배려하며 즐겁게 탐방한다.

2. 차량 내 주의사항

-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2) 차량번호를 숙지해둔다.
- (3) 탐방 차량임을 확인하고 탑승한다.
- (4) 승차하기 전 신발을 털어 차내 먼지를 최소화한다.
- (5) 하차 시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모아서 정리한다.
- (6) 하차 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표한다.

3. 숙소 내 주의사항

- (1)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동한다.
- (2) 서로의 건강을 위하여 개인위생에 신경쓴다.
- (3) 일정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나친 음주는 피한다.
- (4) 인솔자의 허락 없이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 (5) 반드시 자신이 배정된 방에서 취침한다.
- (6) 숙소에서 나올 시 자신의 물건을 두고 나오지 않도록 확인한다.
- (5)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둔다.

버스 좌석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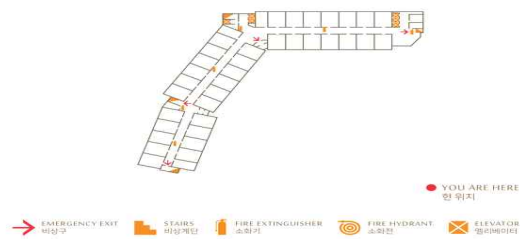
기사님			계단	
이혜미 (조교)			신서인 선생님	
정병규 (답사부장)			이병기 선생님	
서은혜 선생님			유인선 선생님	
김다은	박민경 (부학회장)		고진현	박선호
PHUNG THI NHUNG	PHAM THI HOA		엄서진	오한별
NGUYEN THI TAM	허준희		전예진	김나영
홍예슬	장예주		송문규	박이삭
이성민	심현진		이지오	김지원
박요한	이인준		김소은	박세현
김진형	유영후	김무원	황대중	
송민혁	조성빈		정경원 (학회장)	이상훈

숙소 방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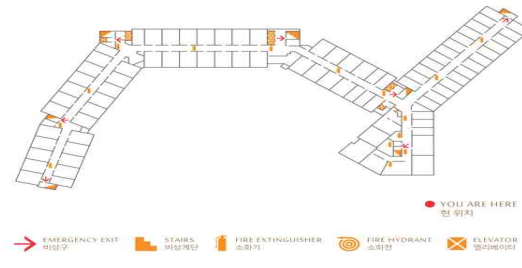
1일차 소노벨 변산

방 번호	방 배정	인원 수	합계
1	정경원(방장) 이상훈 박이삭 황대중 조성빈	5	총 15명
2	고진현(방장) 박요한 김진형 박선호 유영후	5	
3 (간담회실)	정병규(방장) 이인준 김무원 송문규 송민혁	5	
4 (간담회실)	박민경(방장) 이혜미 PHUNG THI NHUNG 김지원 오한별 이지오 장예주	7	총 19명
5	김다은(방장) 엄서진 PHAM THI HOA 전예진 허준희 홍예슬	6	
6	심현진(방장) NGUYEN THI TAM 김나영 김소은 박세현 이성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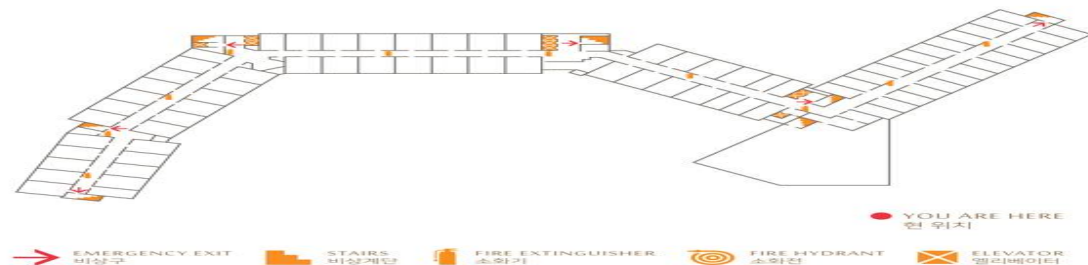
FIRE EVACUATION PLAN
객실 비상 대피도



FIRE EVACUATION PLAN
객실 비상 대피도



FIRE EVACUATION PLAN
객실 비상 대피도



숙소 방배정

2일차 내장산생태탐방원

방 번호	방 배정	인원 수	합계
1 (간담회실)	정경원(방장) 이상훈 이인준 박선호 송문규 유영후 조성빈	7	총 15명
2	고진현(방장) 박요한 김진형 박이삭	4	
3	정병규(방장) 김무원 황대중 송민혁	4	
4 (간담회실)	박민경(방장) 이혜미 PHAM THI HOA NGUYEN THI TAM PHUNG THI NHUNG 이지오 홍예슬	7	총 19명
5	김다은(방장) 김나영 전예진 허준희	4	
6	심현진(방장) 김소은 박세현 이성민	4	
7	엄서진(방장) 김지원 오한별 장예주	4	

화재시 대피요령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2. 화재경보 비상벨
3. 낮은자세로 오른쪽 피난안내도에 피난 동선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

소화기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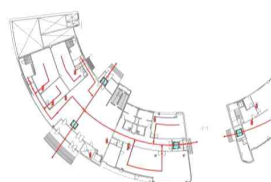
1. 소화기를 벽면에 내려두고 안전핀을 뽑는다.
2. 환손은 손잡이, 다른환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밀면 누르고 빗자루로 불꽃이 발생한다.

화재시 대피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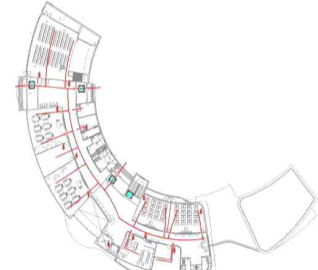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2. 화재경보 비상벨
3. 낮은자세로 오른쪽 피난안내도에 피난 동선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를 벽면에 내려두고 안전핀을 뽑는다.
2. 환손은 손잡이, 다른환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밀면 누르고 빗자루로 불꽃이 발생한다.



[내장산생태탐방원, 1F]



[내장산생태탐방원,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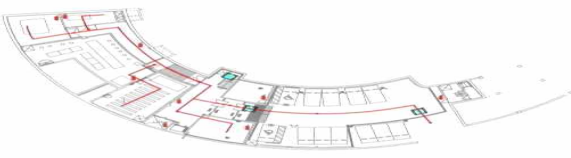
비상구 → 피난동선 ● 현위치 소화기

화재시 대피요령

1.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2. 화재경보 비상벨
3. 낮은자세로 오른쪽 피난안내도에 피난 동선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를 벽면에 내려두고 안전핀을 뽑는다.
2. 환손은 손잡이, 다른환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밀면 누르고 빗자루로 불꽃이 발생한다.



비상구 → 피난동선 ● 현위치 소화기

[내장산생태탐방원, BF]

한국문학탐방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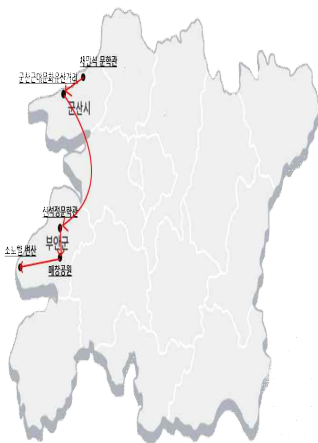
*전라북도 일원: 1일차(군산, 부안) / 2일차(정읍, 고창) / 3일차(남원)

구분	1일차 4/5(수)	2일차 4/6(목)	3일차 4/7(금)
07	07:40 집합 (학교-대학본부)	07:30 기상	07:00 기상 07:30 숙소 내 조식
08	08:00 출발 (학교 대학본부) 및 이동 (4시간 10분)	08:00 조식(채석강맛집)	08:40 출발 및 이동(1시간 20분)
09		09:00 출발 및 이동 (1시간 5분)	
10		10:05 미당시문학관 도착 ④조 발표-서정주	10:00 혼불문학관 도착 ⑦조 발표 - 최명희 10:35 출발 및 이동(25분)
11		11:20 출발 및 이동 (1시간 5분)	11:00 광한루원 도착 ⑧조 발표 - '춘향전' 11:50 출발 및 이동 (도보 10분)
12	12:30 중식(금강우렁쌈밥)	12:30 중식(바다마을식당)	12:00 중식 (광한루석쇠구이)
13	13:20 출발 및 이동 (5분) 13:25 채만식문학관 도착 ①조 발표 - 채만식	13:20 출발 및 이동 (도보 5분) 13:30 채석강 (유람)	13:00 출발 및 이동 (4시간 30분)
14	14:10 출발 및 이동 (10분) 14:20 근대문화유산거리 도착	14:30 출발 및 이동 (1시간)	
15	15:40 출발 및 이동 (50분)	15:30 무성서원 도착 ⑤조 발표 - 정극인	
16	16:30 석정문학관 도착 ②조 발표 - 신석정		
17	17:20 출발 및 이동 (10분) 17:30 매창공원 도착 ③조 발표 - 이매창	16:40 출발 및 이동 (30분) 17:10 정읍사문화공원 ⑥조 발표 - '정읍사'	17:30 도착 (학교-대학본부) 및 해산
18	18:00 출발 및 이동 (40분) 18:40 석식 (금강산밥덤)	18:10 출발 및 이동 (15분) 18:30 석식 (고향촌)	
19	19:30 출발 및 이동 (10분) 19:40 숙소 입실 (소노벨 변산) 20:30 소감문 작성 21:00 간담회	19:30 출발 및 이동 (25분) 20:00 숙소 입실 (내장산생태탐방원) 20:30 소감문 작성 21:00 간담회	
20			
21			
22	22:00 개인 정비 및 취침	22:00 개인 정비 및 취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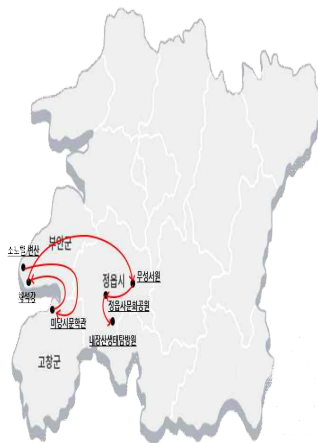
한국문학탐방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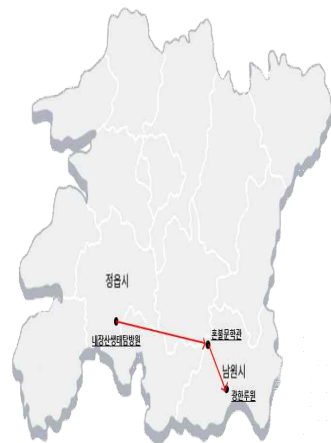
<1일차>



<2일차>



<3일차>



탐방지 정보

구분	지역	장소	전화번호	주소
탐방장소	군산	채만식문학관	063-454-7885	전북 군산시 강변로 449
	군산	군산근대문화유산거리	063-580-4434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0
	부안	석정문학관	063-584-056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63
	부안	매창공원	063-580-443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 부안문화원
	정읍	무성서원	063-539-5184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정읍	정읍사문화공원	063-530-7429	전북 정읍시 정읍사로 541
	고창	미당시문학관	063-560-8058	전북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미당시문학관
	변산	채석강	063-528-7808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남원	혼불문학관	063-620-5744	전북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
	남원	광한루원	063-620-8907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숙소	부안	소노벨 변산	063-580-8924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대명리조트 변산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	063-538-1700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식당	군산	금강우렁쌈밥	0507-1487-0521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31 금강우렁쌈밥
	부안	금강산밥덤	0507-1332-0631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291-4
	부안	채석강맛집	0507-1345-9260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25 채석강맛집
	부안	바다마을식당	063-581-4444	전북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길 11
	정읍	고향촌	063-538-9282	전북 정읍시 수성로 35
	남원	광한루석쇠구이	063-626-7788	전북 남원시 광한서로 37 별미식당

보고서 양식

<한국문학탐방 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23년 4월 일 (일차)				
탐방 장소	탐방 내용				
【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한 감상】					
【발표 내용 및 답사 일정에 관한 의견】					

Ⅱ-발표 자료

채만식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채만식의 생애

인문학부 20231037 박세현

채만식(蔡萬植)은 1902년 7월 21일(음력 6월 17일) 전라북도 임피군 군내면 동상리에서 6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호는 백릉(白菱), 채옹(采翁)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익산과 군산 중간의 자그마한 마을인데, 마을 앞뒤로 만경강과 금강이 흐르고 남산에 올라가면 만경평야가 보이는 곳이다. 그는 열여섯 살까지 그곳에서 뛰어놀며 꿈을 키우게 된다. 아버지 채규섭(蔡奎燮)은 자식들을 서당에 보내 한문을 익히게 하여 막내였던 채만식도 1914년 임피 보통학교와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 제1와세다 고등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¹⁾ 하지만 관동대지진의 영향과 어려워진 형편으로 1년 만에 와세다대학을 중퇴하게 된다.

채만식은 대학을 중퇴하고 1924년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세길로'(1924년)가 <조선문단> 3호에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곧이어 기자 활동을 그만두게 된다. 1931년에는 개벽사에 입사하였다가 1933년 조선일보에 장편소설인 '인형의 집을 나와서'를 연재하며 직장을 옮긴다. 1934년 <신동아>에 풍자적인 수법을 통해 지식인의 실직 문제를 다뤄 사회 현실을 고발한 희곡인 '인텔리와 빈대떡'과 '레디메이드 인생'을 내놓아 풍자 작가로 주목받게 된다. 이 소설은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여 서사성이 약하다는 비판적인 평을 받았지만, 당시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시대를 풍자하고, 일제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저항 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²⁾

이후 10여 년 동안의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형과 개성, 강화, 안양을 돌아다니며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그는 일제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는 소설인 '보리방아'(1936년)를 연재했으나 검열에 걸려 중단하였다. 또한 희곡 '심봉사'를 <문장>에 연재하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전문을 삭제당했다. 채만식은 일제의 검열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더욱 은밀하고 세련된 풍자 기법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바로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탁류'다. '탁류'에 이어 채만식은 풍자성이 뛰어난 '천하태평춘'(후에 '태평천하'로 연재)을 <조광>에 연재하고 이외에 '치숙', '이런 처지', '소망' 등을 발표한다.

1939년 독서회 사건으로 채만식은 구속된다. 구속된 채만식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일제의 탄압 때문에 비관주의로 기운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친일적인 글쓰기가 시작된다. 그의 친일 글쓰기는 1940년부터 1945년 5월 17일에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바로 '여인전기'이다.

해방 후 그는 가난과 폐결핵으로 인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한 '맹순사', '미스터 방', '논 이야기' 등의 작품을 1946년에 발표한다. 그리고 1948년에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통해 그의 친일 활동을 회개한다. 그는 무리한 집필로 폐결핵이 악화되었고, 1950년 6월 11일, 들꽃과 함께 화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4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참고문헌》

이재흥, 「연구: 채만식론(蔡萬植論)」, 『겨레어문학』, 겨레어문학회, 1972. pp.210~242.
이정관, 『채만식을 읽다』, 휴머니스트, 2021.

1) 이재흥, 「연구: 채만식론(蔡萬植論)」, 『겨레어문학』, 겨레어문학회, 1972, p.211.

2) 이정관, 『채만식을 읽다』, 휴머니스트, 2021, p.13.

한 여인의 기구한 삶

-『탁류』 줄거리

20231010 인문학부 김무원

군산의 한 미두장은 오늘도 시끌시끌하다. 저기 먹살을 잡힌 남자의 이름은 정 주사, 다행히 굶지나 않는 선비의 집 자손으로 일찍부터 친구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정 주사가 이런 미두장에서 왜 소란을 벌리고 있을까?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절반 이상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군산으로 이사를 해왔다.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 결국 작은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미두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자녀들에 대한 승벽이 유난스러워 자식 4명 모두를 공부시키려 하는 아내와 많은 자식으로 정 주사네는 가난이란 일상이었다. 어느 날 미두판에서 집으로 가던 길 외상 쌀이나 더 빌릴까 하는 생각으로 한 참봉의 가게에 들어선다. 눈치가 보여 험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봉과 장기만 두고 있게 된다. 장기를 두던 중 한 참봉의 아내 김 씨가 나와 떠들썩해지던 중 장녀인 초봉의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 김 씨는 점 찍어 둔 사람이 있다며 중매 제의를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그는 좋은 제의라고 생각한다.

정 주사의 장녀 초봉은 그의 아버지의 지인인 박제호가 운영하는 양약국인 제중당에서 일하고 있다. 일도 꽤 잘하고 얼굴까지 미인인 초봉은 그의 사장에게도, 가끔 물건을 사는 은행원 고태수에게도 이쁨을 받는다. 어느 날 초봉은 제호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얘기를 듣게 된다. 이 가게를 비싼 값에 팔았고 서울로 가게를 옮길 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다. 초봉은 집안 사정을 생각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무산되고 만다. 제호의 부인인 윤희와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희는 제호가 초봉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그녀를 시기하고, 정 주사는 김 씨가 초봉의 중매 상대로 직업과 평판도 좋은 고태수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초봉은 서울로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고태수와 결혼하는 쪽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사실 그녀는 태수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하숙하던 남승재라는 청년을 좋아하고 있었고 그도 그녀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집안의 사정을 생각하면 의사 준비생인 승재보다 평판과 직업, 집안, 외모까지도 괜찮은 태수가 더 나은 것이 사실이었다.³⁾ 결국 초봉은 태수와 결혼하게 된다.

이렇듯 완벽해 보이는 태수지만, 그의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한 부모 가정에 가난하였고, 은행원이 되어서는 은행의 돈을 횡령한다. 그 돈으로 자신의 친구인 곱추 장형보를 시켜 미두판에 미두를 벌이고는 했다. 그러면서 이 행실이 들통나면 죽어버릴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이 고태수의 실체였다. 이외에도 이성과의 불건전한 관계로 성병을 가지고 있었다. 태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승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 사실을 안 승재는 그를 죽이려 하지만 끝내 실행하지는 못한다.

한편 태수의 심부름을 받고 미두를 하곤 했던 장형보는 사건 사고를 벌이고 다닌 태수가 멀쩡히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또한 초봉의 미모를 보면서 그는 한 가지 계락을 꾸미기로 결심한다. 자식이 없는 한 참봉의 집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하숙 생활을 했던 태수는 그의 아내인 김 씨와 불륜을 일삼고 있었다. 형보는 이 사실을 태수와 김 씨가 만나는 날 한 참봉에게 알린다. 소식을 듣고 현장까지 목격하게 된 참봉은 몽둥이로 두 사람을 때려죽이게

3) 채만식, 『탁류』, 소담출판사, 2004, pp.250~265.

된다. 그 사이 사건의 주동자 형보는 초봉을 찾아가서 그녀를 겁탈한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된 초봉은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떠나는 이리 역에서 그녀는 박제호를 만나게 되었다. 일하던 시절 가불을 잘해주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재호가 그리 나쁘지 않았고 그도 그녀를 좋게 생각했다. 사실 박제호도 다른 인물들처럼 계락을 꾸며 초봉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다.⁴⁾ 제호는 그녀에게 함께 새 출발을 권했고 초봉은 받아들여지게 된다.

새 출발을 하게 된 초봉이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어찌하여 생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형보가 찾아와 자신이 아버지라 강하게 주장하고 이 모습을 제호가 보게 되었다. 제호는 쉽게 초봉을 넘겼고 지독하리만큼 기구한 초봉은 이번에는 형보와 살게 되었다. 태수가 넘겨준 돈으로 꽤 여유가 있었던 형보에게 초봉은 몇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중 하나는 계봉을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 초봉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형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견어차서 죽이게 된다. 한편 형보에게서 초봉을 구출할 계획을 세운 계봉과 승재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자살을 생각했던 초봉은 두 사람의 만류에 징역을 살기로 결심한다.

《참고문헌》

이경훈, 「이중의 탁류: 채만식의 〈탁류〉에 대해」,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pp.183~199.

채만식, 『탁류』, 소담출판사, 2004.

4) 이경훈, 「이중의 탁류: 채만식의 〈탁류〉에 대해」, 『연세어문학』,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pp.187~191.

하층민과 부정적 인물들을 보여주는 채만식

-『탁류』의 배경

인문학부 20231015 김소은

탁류는 군산 출신의 작가인 채만식이 군산을 배경으로 쓴 장편 소설이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하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하층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당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부정적 인물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흐린 물 즉, 탁류라고 작가는 말했다. 근대화가 진행되며 자본주의가 왜곡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탐욕에 찌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회를 만들고 봉건적 구습이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만들어졌다.⁵⁾

금강의 끝에 있는 군산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무차별적이고 장기적인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해져 일제가 자국의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군산을 중심으로 신작로와 철도를 개통하여 막대한 양의 쌀을 충당하였고 그 쌀을 서해를 통해 일본으로 옮겨졌다. 금강 물이 군산 부근에서 서해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일본이 군산을 거쳐 조선의 쌀을 수탈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배경 속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층민과 부정적 인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농사를 지어 만들어진 쌀이 온전히 조선인에게 돌아가도 부족했을 것인데 일본이 조선의 쌀 반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인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으면서도 배를 풍족하게 채우지도 못하고 겨우 삶을 이어가며 살았다.

그 후 탁류의 배경이 되었던 군산은 원도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겨진 장소들을 엮어 '탁류길'이라는 역사 탐방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탁류길을 만들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고 아픔과 항쟁을 배우며 과거를 돌아보자고 만들어졌다. 탁류길에는 조선은행 동국사와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당시의 주택 형태를 관람할 수 있는 군산항쟁관, 탁류에 나온 정주사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함께 볼 수 있는 소설비, 수산물 중심지인 해망동과 군산 시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해망굴을 볼 수 있다.⁶⁾ 그 외에도 영화 촬영지인 신흥식 일본 가옥과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당시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채만식의 탁류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일제강점기 때 군산의 아픔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만수, 「국문학 산책 : 탁류 속의 인간 기념물 - 채만식의 「탁류」를 찾아」,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1998, pp.254~271.

임명진, 「채만식 『탁류(濁流)』의 "장소(場所)"에 관한 일 고찰」, 『現代文學理論研究』,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pp.255~278.

5) 임명진, 「채만식 『탁류(濁流)』의 "장소(場所)"에 관한 일 고찰」, 『現代文學理論研究』,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p.264.

6) 김만수, 「국문학 산책 : 탁류 속의 인간 기념물 - 채만식의 「탁류」를 찾아」,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1998, p.262.

채만식 『탁류』, 한 여인의 수난사

-『탁류』의 문학사적 의의 설명

국어국문학과 20181095 정경원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 1937년의 지나 사변을 통해 탄압을 강화하자 채만식과 같은 작가들은 작가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일본에 대응했다. 이러한 시대에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다룬 소설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 채만식의 ‘탁류’는 1930년대의 식민지 자본주의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의 수난사를 진행되는 서사이고, 당대의 식민지 수탈이 나타난 풍속과 연애관 등이 묘사되어있다. ‘탁류’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주인공의 생애를 비극적이면서 극단적이고 거부적인 행위가 나타나면서 주인공의 일생은 극단적인 저항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민족의 역사적 운명을 암시하는 작품이다.

채만식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채만식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좋다. 첫 번째로 채만식은 기자라는 직업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현실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비판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민족과 사회 문제들을 작품의 중심체제로 삼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가세가 기울어짐으로써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 이러한 가난의 경험을 통해 「탁류」에 나타난 미두로 몰락한 지주의 모습, 도시와 농촌의 빈민상을 볼 수 있다.

이 당시 이상적인 문학은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일제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문학이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가들은 중간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가들은 마음대로 해방을 외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가의 성격과 같은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여 갈등 속에서 당시의 상황을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이 있었다. 또한 지조, 생존과 같은 두 가지 역할들을 소화하기 위해 일제의 검열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고, 풍자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탁류」라는 작품에서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풍자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채만식 작가는 「탁류」라는 작품의 인물들에게 식민시대의 폭력적인 현실을 드러내면서 현실 타협적인 성격적 결함을 드러냄으로써 속물적인 현실 대응방식을 비판하고 있다.⁷⁾

「탁류」라는 이 소설은 정주사를 중심인 전반부가 생생한 역사이면서 현실라면, 초봉이를 중심으로 한 후반부는 단순한 대중적인 이야기에 끝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빈곤과 같은 것들은 채만식의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관심거리이다. 그것들은 우리 민족에게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에 대응하여 그는 고발적인 형태이면서 때로는 풍자적, 비판적인 문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형상화를 그려낸 채만식은 실제 작품 속에서 극복적인 대상으로 설정되어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탁류」에서는 봉건체제의 해체 속에서 식민지 시대로 전락하는 과정, 조선 사람들의 몰락하는 모습, 식민지 시대속의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이경훈, 「이중의 탁류: 채만식의 〈탁류〉에 대해」, 『탁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pp.183~199

7) 이경훈, 「이중의 탁류: 채만식의 〈탁류〉에 대해」, 『탁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pp.188~189.

한국 근현대사의 목가적 저항시인, 신석정

- 신석정의 생애

인문학부 20231027 김진형



신석정(辛夕汀/辛錫正)은 1907년 8월 15일(음력 7월 7일) 전라북도 부안군 동도면(現 부안읍) 동중리에서 신기온(辛基溫)과 이운옥(李允玉)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1918년 부안공립보통학교(現 부안초등학교) 2학년으로 입학해 1923년 3월 졸업했고 같은 해 5월 박소정(朴小汀)과 결혼하여 슬하에 4남 4녀를 두었다. 보통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가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학대하자 전교생 동맹 휴학을 주도하여 무기정학을 당했던 일화도 있다.⁸⁾

1924년 11월 24일자<조선일보>에 ‘기우는 해’를 투고하여 등단한 후 1931년까지 여러 신문과 잡지를 통해 80여 편의 시를 발표하였고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중앙불교전문강원(現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했다.

1931년 10월 <시문학> 제3호에 ‘선물’을 투고한 것을 계기로 김기림, 김영랑, 정지용, 박용철, 이광수, 이병기, 주요한, 한용운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교분을 쌓았으나 1932년 경성 생활을 청산한 후 부안으로 귀향하였고 이후로는 전북 지역에서만 활동하였다.⁹⁾ 1939년 11월 3부 33편¹⁰⁾으로 구성된 첫 시집 『촛불』을 발표하였다.

신석정은 흔히 순문학에 가까운 목가적 시인으로 알려졌으나 일제 강점기 저항 시인으로서의 평가도 높다. 1939년 9월 <학우구락부>에 투고한 ‘방’으로 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고 1940년 7월 <문장>에 투고한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는 검열로 삭제됐다. 1943년 창씨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출두령을 받아 광복 때까지 피신했다.¹¹⁾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는 문학계에도 민족 말살 정책에 기반한 탄압을 가했다. 1941년 <문장>이 폐간되고 <인문평론>은 친일 문학지 <국민문학>으로 바뀌었다. 문인들은 일본어로 된 작품이나 친일적 작품 외에는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신석정은 친일 문학지들의 원고 청탁을 거절하고 광복까지 절필을 선언함으로써 친일 작품을 단 한 개도 남기지 않았다. ‘산보로’(1942)를 제외하면 이 시기 창작한 작품들은 모두 광복 후에 발표되었다.

광복 직후인 1945~1946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전북문화인연맹 등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한국문학 건설을 도모하였고 1946년 갓 개교한 부안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6.25 전쟁 이전까지 죽산중학교¹²⁾와 부안중학교에서 근무했다. 1947년에는 일제 말기에 쓴 시 33편을 엮은 제 2시집 『슬픈 목가』를 발표했다.

6.25 전쟁 당시 신석정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시집 2편의 판권을 쌀 두 가마니에 매각해야 할 정도였다.¹³⁾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전주의 작은 신문사 <태백신문>의 편집고문을 역임했고 1954년 <삼남일보>의 편집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전주로 이사한 후로는 전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영생대학(現 전주대학교)에서 근무했다. 이 시기 발표한 제 3시집 『빙하』(1956)는 해방 직후와 6.25 전쟁 전후에 창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8) 윤여탁, 『신석정: 자연과 생활을 노래한 목가 시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pp.16~19.

9) 윤여탁, 위의 책, pp.25~27.

10) 1951년 판권 매각으로 출판된 1952년 판본에서는 3편이 추가되었다.

11) 허소라, 『못다 부른 목가: 신석정의 생애와 문학』, 석정문학연구원, 2014, pp.242~243.

12) 이후 김제서중학교로 개명하였고 2004년 폐교되었다.

13) 허소라, 위의 책, p.245.

1960년 4·19 혁명 직후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된 한국 사회는 수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신석정은 혁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시국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북대학교보>에 ‘동방반명’, ‘4월혁명에 부치는 노래’ 등 혁명을 지지하는 시들을 투고했고 이듬해 1961년에도 ‘쥐구멍에 햇별을 보내는 민주주의의 노래’ <전북일보>, ‘다가온 춘궁’ <민족일보>¹⁴⁾, ‘전 아사’ <사상계>¹⁵⁾, ‘단식의 노래’¹⁶⁾ <경향신문> 등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들을 발표하였다. 5·16 군사 정변 직후 신석정은 경찰과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8일간 취조를 받았고 3개월 후 전주고등학교를 떠나 김제고등학교로 이직하였다. 이후로도 신석정은 5·16 이후의 사회 변화를 비판한 ‘무명예의 향변’(1962)과 ‘영구차의 역사’(1962), 베트남 파병을 은유적으로 비판한 ‘꿈의 일부’(1967) 등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하였고 1969년 5월에는 중앙정보부 본부로 끌려가기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¹⁷⁾¹⁸⁾

1963년 전주남중학교, 1964년 전주상업고등학교로 이직한 후 1972년 정년퇴임했고 이 시기 한국문인협회(1966~1967),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1967~1969) 전북지부장을 역임했다.

작품 활동도 지속하여 『산의 서곡』(1967), 『대바람 서곡』(1970)까지 총 5편의 시집을 남겼고 이후로도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가 발간한 책 『밀림대』(1971)에 시 13편을 수록하는 등 왕성히 활동하였다.¹⁹⁾ 시집 외 저서로 『중국시집』(1954, 번역시집), 『명시조감상』(1958, 이병기와 공저), 『매창시집』²⁰⁾(1958) 등이 있으며 주요 수상 경력으로 전라북도문화상(1958), 전주시문화상(1965), 한국문학상(1968), 문화포장(1972), 대한민국예술문화상(1973) 등이 있다. 1973년 12월 전북문화상 심사 중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1974년 7월 6일 전주 소재 자택에서 사망했다. 같은 해 7월 24일 유고 수필집 『난초잎에 어둠이 내리면』이 출간되었다.

1984년 7월 신석정의 10주기를 맞아 <자유문학>에 신석정의 추천으로 등단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석정문학회’가 설립되었다. 2007년 석정문학회가 유고 시집 『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을 간행하였고 2009년 국학자료원에서 『신석정 전집』이 간행되었다.²¹⁾ 2011년 10월 고향 부안에 석정문학관이 개관하였다.

《참고문헌》

윤여탁, 『신석정: 자연과 생활을 노래한 목가 시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pp.16~42.
허소라, 『못다 부른 목가: 신석정의 생애와 문학』, 석정문학연구원, 2014, pp.242~250.

14) 1961년 2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발행되었던 진보 성향 일간지이다. 약 3개월 간 92호를 발행하고 40,532부를 판매하였으나 5·16 직후 강제로 폐간당하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3명이 구속, 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논설위원 송지영과 감사 안진규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1961년 12월 21일 발행인 조용수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용수는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복권되었고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 1953년부터 1970년까지 발행되었던 월간 시사잡지이다.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장준하가 발행인이었으며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비판적 성향으로 당시 사회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 반정부 언론이었다. 1970년 5월호에 김지하가 투고한 시 「오적」으로 인해 김지하와 편집진 전원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으며 같은 해 9월 반공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폐간당했다.

16) 4·19 직후 사학비리 척결과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등장한 교원 노조를 지지하는 시이다.

17) 허소라, 위의 책, pp.247~250.

18) 신석정은 이 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당시의 심정을 「서울 1969년 5월 어느 날」(1969)이라는 시를 통해 표현하였다.

19) 윤여탁, 위의 책, p.42.

20) 이매창은 조선의 기생으로 시와 가무에 뛰어나 당대 명사들과도 교분을 쌓았다. 수백 편의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며 1668년 부안현 아전들이 시 58수를 엮어 『매창집』을 간행하였다. 신석정과 함께 부안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1) 2009년 허소라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신석정 전집』 간행을 준비하다가 「인도의 노래」(1942),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날」(1942) 등 일제 말기에 쓰여진 미발표 시 14편을 발굴하였다. 허소라의 저서 『못다 부른 목가: 신석정의 생애와 문학』에는 일제 말기 미발표 시 3편, 광복 직후 미발표 시 3편, 6.25 전쟁기 미발표 시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신석정 시인의 굳건한 의지를 기억하며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해설

인문학부 20231060 유영후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해의 옅은 광선들이 섭섭해 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무슨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히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높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머언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기인 독을 거쳐서 들려오는
물결소리도 차츰차츰 멀어져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는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 버린 까닭이겠습니까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애기의 잠 뒹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세요
인제야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신석정 시인은 1907년 7월 7일에 태어난 시인이다. 그는 황금 같은 20대를 일제 강점기라는 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어둠고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고민하였다. “아. 내가 어찌하면 이 현실 속에서 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의지가 투영된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이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이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는 신석정 시인의 초기작품으로 신석정 초기 시의 특징인 독창적인 자연미와 서구적 이미지의 수용,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글 등의 특징 중 독창적인 자연미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글 전개가 단연 돋보이는 글이다. 본 시에서 작은 별, 녹색 침대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은 별’은 천문학적 표현으로써 단순히 지구 내부의 모습이 아닌 우주로 자연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측한 것을 나타내고, ‘녹색 침대’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침대’라는 표상에, ‘녹색’이라는 독창적인 자연미를 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²⁾

이처럼 신석정 시인은 우리가 단순하다고 여기는 사물들과 주변도 본인만의 독특한 시선과 인식, 표현법 등을 입혀 독창적인 문학을 만들어냈다. 또한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22) 정숙인, 「신석정 초기 시의 환상성 연구」, 『韓民族語文學』 92, 2021, pp.204~210.

에서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별을 즐기느라고 돌아 오지 않고’ 라는 구절과 같이 자연과 현실세계의 ‘낭만적 이상주의’적인 세계관도 드러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연, 현실이 각각 연결되기도 하며 이런 표현을 통해 공동체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 또한 볼 수 있다. 또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에서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와 같은 표현에서 ‘어둠’은 일제 강점기 속 어두운 현실을, ‘그 새새끼들’은 일본군을 나타낸다.²³⁾

이처럼 독창적인 자연관,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글 등도 신석정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제대로 문학 및 창작활동 조차 할 수 없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는 태도 또한 신석정 시인의 아름다운 작품세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신석정 시인이 존경받는 시인이고, 문학가인 이유에는 독창적인 자연미와 서구적 이미지의 수용,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글과 같은 그의 뛰어나며 독창적인 작품구조도 있지만, 본인이 살던 시절에 대한 고찰과 시대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저항했던 것도 매우 중요했다.

《참고문헌》

김옥성, 「신석정 초기 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의식」, 『한국학』 36-4, 2013, pp.173~200.

정숙인, 「신석정 초기 시의 환상성 연구」, 『韓民族語文學』 92, 2021, pp.195~224.

23) 김옥성, 「신석정 초기 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의식」, 『한국학』 36-4, 2013, pp.183~190.

신석정이 동경하던 그 먼 나라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해설

인문학부 20231073 이지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깊은 삼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야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 다니는
아무도 살지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그 나라에 가실때에는 부디 잊지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山 비탈 넋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 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뜯고
길쭉는 옥수수 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핑 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가마귀 높이 날어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 한들 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 그나라에서

양지 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때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또옥 또옥 따지 않으렵니까?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은 한국 근대 시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시인이다. 그의 시는 주로 자연을 아끼고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노래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라는 시는 신석정

의 초기 시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자연을 동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동경하는 내용과 함께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한다.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문학이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억압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올바른 문학의 생성이 불가능한 일제강점기 시대였다.²⁴⁾ 신석정이 시에서 사용한 ‘자연’이라는 소재는 자신이 나타내려는 바를 숨기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적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쓰인 신석정의 작품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이상세계를 그려내며 그 안에 억압받는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신석정은 은유와 반어 등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²⁵⁾

이 시에서는 ‘먼 나라’, ‘어머니’ 등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상향 세계를 그리며 시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간다. 화자는 시에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라는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 먼 나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에서는 ‘깊은 삼림지대’, ‘고요한 호수’, ‘흰 물새’, ‘들장미 열매’ 등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자신이 동경하는 자연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상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며 동경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억압받고 있던 암울한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또한 시에서 언급되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사람에게 가장 아늑한 고향이면서 안식처의 역할을 한다.²⁷⁾ 이 시의 어조는 어머니에 대한 청유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이상향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유아적 환상의 세계에 의탁한 시인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인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며 시가 내재하고 있는 현실비판에 대하여 비춰준다고 볼 수 있다. 신석정이 그리고 있는 이상향인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구체성과 확실성이 부여된 공간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현실에 비추어보면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슬픔과 그 소극적 감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신석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많은 문화적 자유를 탄압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동경하는 세계를 표현함과 동시에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그 작품 속 안에 녹여냈다는 점이 신석정 시인만의 아름다운 작품세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귀옥, 「신석정 시의 현실주의적 경향 연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BI LANTING, 「신석정과 평즈 시의 상징성과 시의식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4) 서귀옥, 「신석정 시의 현실주의적 경향 연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2.

25) 위의 글, p.4.

26) BI LANTING, 「신석정과 평즈 시의 상징성과 시의식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15.

27) 위의 글, p.16.

신석정의 이상향을 바라보며

-신석정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신석정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자연시인’, ‘목가시인’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자연’과 ‘평화’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대다수이며, 이는 대표작 중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와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그가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던 1930년대는 일제가 조선에 침입하여 민족말살정책 등으로 탄압하여 조선에게는 큰 격동의 시기이므로, 이 때 문학가들의 작품에는 시대적 영향을 받은 그들의 감정이 담겨 있다. 신석정의 작품에서도 일제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바람이 드러난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속 ‘그 먼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을 바라는 신석정의 이상향으로 ‘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이지만, 평화로운 공간을 상상하며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다.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의 여러 시어와 어머니의 이미지가 결합되며 공동체적 삶 속의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촛불』에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주로 등장시키며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 이상적 세계를 ‘하늘’에 대입하여 현실의 절망과 이상향을 표출하였다.

‘목가시인’에 걸 맞는 자연적 시어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의 ‘어린 양’, ‘흰 물새’, ‘염소’, ‘비둘기’, ‘꿩’, ‘노루새끼’ 등 자연의 동물들을 자유로운 모습들을 통해 인간이 함께 뛰어노는 세계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인 자연미적 표현으로 신석정이 가장 추구하는 이상향이 민족과 인류를 넘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²⁸⁾

신석정의 작품에는 목가적인 시를 전개하며 뛰어난 현실 의식을 시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평화로운 자연에 자신을 투영하여 심리적 내면 공간과 본인의 이상 세계인 유토피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가 계속해서 이상향을 추구하고 바랐다는 것은 그만큼 신석정이 살았던 시대가 절망적이었고 모순과 핍박이 많았다는 것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시대적 배경과 함께 보았을 때 모진 세파 속에서 자신의 순수한 영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가 가고자하는 순수한 평화로운 세계는 그가 일제 치하에서 추구하는 이상향으로 이는 다름 아닌 해방된 조국이다.²⁹⁾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와 ‘아직 촛불을 켜 때가 아닙니다’ 두 작품이 담긴 『촛불』 이외에 『빙하』, 『산의 서곡』, 『대바람 소리』에서도 신석정이 바라는 이상 세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과거 1930년대 격동기를 겪은 문학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시대의 고난과 독립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하고 그들의 현실 의식이 어떠한 공간을 통해 표출되는지 고찰하여 현실 참여적 정신의 작품들을 비교한다면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확실히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옥성, 「신석정 초기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 의식」, 『한국학』 36-4, 2013, pp.170~185.

박은미, 「신석정과 김상용 시에 나타난 자연 비교 연구」, 『인문과학논집』 16, 2007, pp.100~120.

28) 김옥성, 「신석정 초기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 의식」, 『한국학』 36-4, 2013, p.185.

29) 박은미, 「신석정과 김상용 시에 나타난 자연 비교 연구」, 『인문과학논집』 16, 2007, p.120.

진흙 위에 향기를 발산한 연꽃

- 이매창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98036 PHAM THI HOA



이매창(李梅窓)(1573~1610)은 조선의 여류문학 중에서 황진이(黃眞伊)와 함께 이른바 기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이매창은 호를 스스로 매창(梅窓), 섬초(蟾初)라 했고 자는 천향(天香), 본명은 향금(香今), 다만 계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생이 된 후로는 계생(桂生) 또는 계랑(桂娘)이라는 애칭으로 통용되었다. 조선 선조 6년(계유년 1573년)에 전라도 부안현의 아전을 지낸 이탕종의 딸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기생이 되었다. 그녀의 운명도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다. 조선 시대 여성 가운데 유일하게 부역이 주어졌던 기생이다.

매창은 어렸을 때부터 단순한 곡조를 접하고 단조로운 춤을 습득했을 것이다. 그리고 7~8세가 될 때, 매창은 본격적으로 부역을 시작했다. 부역을 시작한 매창이 했던 일은 관아에서 가무 교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사또의 숙소에서 불을 밝히고, 사또가 글을 쓸 수 있게 벼루에 먹을 갈고, 잔심부름을 했다. 이맘때 매창의 삶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10세 때부터 시를 지었으며 시와 시조, 가무, 거문고 등 다방면에 재주가 있었고, 그녀의 명성은 부안은 물론 장안에까지 자자했으며 당대의 문사들인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 교산 허균(許筠), 목재 이귀(李貴) 등과 교유했다. 매창은 19세 때, 풍류객 천재 문사인 촌은(村隱) 유희경(1545~1636)을 만나게 된다. 매창과 유희경은 애뜻하게 사랑했다. 그런데 유희경은 부안을 떠나 한양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희경이 『촌은집』에 담은 7편의 시는 어린 매창의 모습과 매창의 사랑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1607년 15년 만에 60 넘는 나이에 유희경은 매창을 찾아와 두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된다. 그동안 처자식과 한양에 살던 그는 옛날에 매창이 헤어지면서 10일간 만이라도 다시 만나 시를 논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내려왔는데 유희경은 '중봉계랑'의 그의 시에서 꽃향기만을 쫓아 온 것이 아니라 시문을 함께 논하자고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고 한다. 그다음에 두 사람은 두 번째의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다.

매창이 죽은 지 58년 만인 1668년에 『매창집』이 간행되었다. 지은 시 수백 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지금은 거의 흩어져 사라졌다. 1668년 10월에 아전들이 읍으면서 전하던 여러 형태의 시 58수를 구해 개암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매창의 시에는 여느 기생들의 시와 마찬가지로 사랑, 이별, 기다림, 그리움, 한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³⁰⁾. 매창은 살아있을 때 거문고를 좋아하고 잘 뜯기 때문에 그녀의 무덤에는 아끼던 거문고를 함께 묻혔다. 매창은 38세의 나이로 그렇게 세상에 떠났다. 변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 것은 매창은 기생이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창이 남긴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참고문헌》

김준형, 『이매창 평전: 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조선의 기생』, 한겨레, 2013.

김재욱, 『한시에 마음을 베이다』, 왕의서재, 2015.

이매창, 박연옥 역,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 오로라드림, 2011.

송재소, 『한국한시작가열전: 송재소와 함께 읽는 우리 옛시』, 한길사, 2011.

30) 송재소, 『한국한시작가열전: 송재소와 함께 읽는 우리 옛시』, 한길사, 2011, p.302.

슬퍼하며 사랑하며 님을 그리며

- 이매창의 시조

국어국문학과 20211072 이인준

이매창의 시조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허나 즐겁고 밝지는 않다. 오히려 “좌절되고 소극적인 사랑의 실패를 노래하고……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세상에 대응하기보다는 양보와 관용의 미덕으로 스스로 서러움과 그리움을……표현하고”³¹⁾있다. 즉 이매창의 사랑은 “기생, 여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³²⁾에 따른 비애이다.

이매창의 시조는 흔히 ‘이화우 흠날릴 제’(이하 ‘이화우’)로 알려진 한 수³³⁾가 남아 있다. 오래도록 교류한 문인이자 이매창이 사랑한 ‘님’인 유희경을 그리워하며 남긴 시조이다.

이화우(梨花雨) 흠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라

-<이화우 흠날릴 제>

이화는 배꽃을 의미한다. 4월과 5월에 피고 비 우(雨)자와 붙은 이화우로 시작하는 초장을 해석하자면 이매창은 배나무 꽃잎이 흠날리는, 즉 봄에 ‘님’과 이별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어도 이매창의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꿈만 오락가락할 뿐, ‘님’을 만나지는 못한다.

이매창의 시조는 그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이매창은 기생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호에 매화나무 매(梅)를 넣을 정도로 절개가 올곧았다. 자신에게 무례하게 희롱하는 나그네나 취객에게 시를 지어 꾸짖을 정도였다. 허나 이는 자신을 희롱한 이들에게 한할 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이들, 특히 유희경을 향한 그리움이 나타난 ‘이화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매창의 한시에서 보이는 주체적으로 남성들과 교류하고자 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면모나, 스스로 물질적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들과 차별화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하였으나 자아를 찾고자 할수록 신분의 문제와 임의 부재라는 현실의 아픔을 벗어나 자유를 추구했지만 성별, 신분, 성격 등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었던³⁴⁾ 이매창의 면모를 함축적인 시조의 형식에 막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참고문헌》

바토자르갈 아쯔짜야, 「이매창 시의 소재 연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영숙,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이화형, 「이매창 시에 나타난 비애의 원천」, 『우리文學研究』 70, 우리문학회, 2021.

한영선, 「이매창 한시 연구-기녀의 삶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31) 바토자르갈 아쯔짜야, 「이매창 시의 소재 연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

32) 이화형, 「이매창 시에 나타난 비애의 원천」, 『우리文學研究』 70, 우리문학회, 2021, p.220.

33) 바토자르갈 아쯔짜야의 「이매창 시의 소재 연구」 pp.19~20.에는 “유희경을 그리며 지은 매창의 시조들”이라고 칭하며 5수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으나, 동일 논문 11쪽의 “‘이화우’라는 시조 한 수가 전하고 있다.”와 한영선의 「이매창 한시 연구」 1쪽과 23쪽의 “매창의 유일한 시조이기도 하다.”에 근거하여 ‘이화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34) 박영숙,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p.47.

신분적 한계 속에서 재능을 꽃피우다

- 이매창의 한시와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71069 이상훈

부안 지방에 전하던 『화원악보(花源樂譜)』 속에는 이매창의 시가 500여 수 실려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³⁵⁾ 하지만 『매창집(梅窓集)』에서 전해지는 한시 57수를 통해 이매창의 작품 속 그녀의 신분적 한계에 대한 한을 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그녀의 재능을 알 수 있다. 이매창의 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와 선비들과 많은 명소를 유람하며 지은 시로 나눌 수 있다.

誰憐綠綺訴丹衷 (수련연기소단충)
萬恨千愁一曲中 (만한천수일곡중)
重奏江南春欲暮 (중주강남춘욕모)
不堪回首泣東風 (불감회수읍동풍)
-<彈琴(탄금)>³⁶⁾

거문고로 속마음을 하소연해도 누가 가엾게 여기랴.
만 가지 원한 천 가지 시름이 이 한 곡조에 들었대요.
'강남곡'을 다시 타는 동안 봄도 저물어 가는데
고개 돌려 봄바람에 우는 짓은 차마 못하겠네.
-<거문고를 타면서>

醉客執羅衫 (취객집나삼)
羅衫隨手裂 (나삼수수열)
不惜一羅衫 (불석일나삼)
但恐恩情絕 (단공은정절)
-<贈醉客(증취객)>³⁷⁾

취한 손님이 명주 저고리를 잡으니
명주 저고리가 손길을 따라 찢어졌네
명주 저고리 하나쯤이야 아쉬울 게 없지만
임이 주신 은정까지도 찢어졌을까 두렵네.
-<취한 손님에게>

千層隱佇千年寺 (천층은저천년사)
瑞氣祥雲石遯生 (서기상운석경생)
淸磬響沈星月白 (청경향침성월백)
萬山楓葉開秋聲 (만산풍엽개추성)
-<登千層菴(등천층암)>³⁸⁾

천층 산 위에 그옥이 천년사가 서 있어
상서로운 구름 속으로 돌길이 났네.
맑은 풍경 소리 스러지는 속에 별빛 달빛 밝은데
산마다 단풍이 들어 가을 소리가 시끄러워라.
-<천층암에 올라>

‘거문고를 타면서’는 이매창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한이 잘 느껴지는 시이다. ‘강남곡’은 장사꾼과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읊은 노래라고 한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기생인 이매창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속마음을 알아줄 리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임을 그리워하며 봄바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취한 손님에게’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취객을 상대로 지은 시이다. 명주 저고리(羅衫)이라는 단어를 통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취객에게 온전히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점에서 재치가 느껴진다. 이매창은 기생의 신분으로 곤경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 시를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상대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한을 나타냈다.

‘천층암을 올라’는 이매창이 허균 일행과 변산 일대를 유람할 당시에 쓰였다. 이 시는 아름다운 시각적 표현으로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가을 산 위의 절이 쉽게 상상이 된다. 또 단풍

35) 한영선, 『이매창 한시 연구-기녀의 삶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p.13.

36) 이매창, 허경진 역, 『한국의 한시-14권, 매창시집』, 평민사, 1986, p.35.

37) 허경진, 위의 책, p.28.

38) 허경진, 위의 책, p.51.

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가을 소리가 시끄럽다는 청각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매창의 작품성과 재능을 볼 수 있다.

이매창은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살아갔다. 이매창은 유희경, 허균 등과 같은 지식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대화했다. 그리고 이매창이 사후 공동묘지에 안치되자, 사람들이 그 주변을 ‘매창똥’이라 부르고 그 곳을 지나다니는 나무꾼들이 틈나는 대로 이매창의 무덤을 돌봤다는 이야기³⁹⁾를 통해 이매창은 권력층만 아니라 하층민에게도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부안에서 매창 공원을 만들어 그녀를 기리고 있다.

한시는 형식상의 제약이 있어 상당한 수준이 필요하고 다양한 표현이 힘들다고 한다. 이매창은 기생이 되어 양반들과 대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작품을 통해 그들과 교류를 했던 것은 이매창의 재능이 뛰어났고 작품성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시대는 남성 중심의 유교 사상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었다. 여성이자 기생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이매창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여성 시인으로 불리었다. 신분적 한계 속에 입을 향한 그리움과 그 한을 노래한 이매창과 그녀의 작품은 당대 지식인뿐만 아니라 하층민, 그리고 현대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기에 문학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준형, 『이매창 평전: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조선의 기생』, 한겨레, 2012.

이화형, 「이매창 시에 나타난 비애의 원천」, 『우리文學研究』 70, 우리문학회, 2021, pp.217~240.

한영선, 「이매창 한시 연구-기녀의 삶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허경진, 『한국의 한시-14권, 매창시집』, 평민사, 1986.

39) 김준형, 『이매창 평전:시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조선의 기생』, 한겨레, 2012, p.13.

사랑을 노래한 이매창의 흔적들

- 이매창 관련 유적지

인문학부 20231024 김지원

<이매창 묘>



‘이매창 묘’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해 있는 매창의 무덤으로 시도기념물이다. 사람들은 이 무덤을 ‘이매창 묘’라고 칭하여 부른다. 이매창은 조선 중기의 기생이자 여류시인(여자작가)이다. 이매창 묘는 1983년 8월 24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매년 음력 4월 5일 부안율객(律客)모임인부풍율회(扶風律會)에서 매창제(梅窓祭)를 지내고 있다. 이매창 묘는 부안읍내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동중

리 봉덕 공동묘지의 서남 기슭에 위치해 있다. 묘의 형태는 원형분묘(圓形墳墓)로 상태는 양호하지만 공동묘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묘역은 비좁은 편이다. 묘 앞에는 높이 100cm, 폭은 39cm 정도 되는 묘비가 서 있다. 묘비는 이매창이 죽은 지 45년이 지난 1655년에 세웠던 것을 글자가 마멸이 심하여 부안의 풍류모임 단체인 부풍시사에서 1917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묘비 앞면에는 ‘名媛李梅窓之墓(명원이매창지묘)’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생졸년(生卒年)과 이매창의 시, 문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비석이 오래되어 다시 세워졌다는 간단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매창공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가면 매창을 추모하여 조성한 ‘매창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매창의 무덤이 있으며, 매창의 모든 것을 담겠다며 2층 기와집으로 지은 ‘매창 테마관’이 있고, 취하신 님께, 천층암에 올라서, 이화우, 거문고를 타면서, 가을, 야수대, 임 생각, 월명암에서 등의 매창 시비가 있다. 그뿐만 아니고 매창과 순수한 우정을 나누었던 허균이 쓴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 비가 있고, 이병기, 정비석, 김민성 등 문학인들이 다녀가면서 회포를 풀 비들이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4183>, 검색 2023.3.22.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37234>, 검색 2023.3.22.

서정주 시인 그는 누구인가

- 서정주의 생애

국어국문학과 20198031 NGUYENTHITAM



서정주(1915~2000)는 음력 5월 18일,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578번지에서 아버지 서광한(徐光漢)과 어머니 김정현 사이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자호(自號)로 '궁발(窮髮)'과 '뚝술(蠹述)'이 있고, 후에 친구인 미사(眉) 배상기(裴相基)가 지 어준 아호 미당(未堂)이 있는데, 그는 나이 들어서야 '미당'이란 아호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⁴⁰⁾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한문학을 공부해 부안 중포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 만에 수료하고 서울 중앙고보에 입학했다. 이듬해 봄 고향 고창고로 전학을 오지만 학생 사건에 휘말려 몇 달 만에 자퇴한다. 1931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대중사 석전 박한영 학교에 입학하여 출가하여 사범대학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

이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석전(石) 박한영(朴漢) 대종사(宗師) 문하(門下)에 들어가 불자(佛)가 되어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의 개운 사대원암(大圓庵) 중앙불교전문강원(中央佛教專門講院)에서 불경을 공부했다. 이어 중앙 불교 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만에 중퇴하고 또 다시 해인사 등지를 유랑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방옥숙 여사와 결혼했다.⁴¹⁾

첫 시집인 『화사집』을 출간하기 전에 그는 만주 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했고, 1941년 고향으로 돌아와 동대문여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서울에 정착했다.

광복 후 김동리, 곽종원, 조연현 등과 접촉해 조선청년문학회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한국문학회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동아일보 문화사회부문장 겸 교육부 초대 예술부문장을 겸임한 그는 남조선대(현재의 부산 동대문의 전신) 설립 당시 교수를 지냈다.

6.25 전쟁 당시 그는 대전, 대구, 부산 등지를 종군기자로 전전하면서 피란 생활을 했고, 1·4후퇴 때는 고향 근처로 피란하여 전주고교(全州高校) 교사 및 전시 연합대학 강사 · 조선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1953년 여름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곧바로 가족과 함께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⁴²⁾

이후 예술원 회원, 문학과 주임, 서라벌예술대 교수, 동국대 교수,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 한국현대시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작가협회 명예회장 1976년 숙명여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시아재단 자유문학상과 5·16 문학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상과 문화대전 본상이 있다.

《참고문헌》

김학동, 『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1.

40) 김학동, 『서정주 연구』, 새문사, 2001, p.882.

41) 위의 책, p.1.

42) 위의 책, p.2.

서정주 ‘국화 옆에서’에 대한 고찰

- 서정주의 작품 세계

인문학부 20231106 허준희

‘국화 옆에서’는 국화꽃이 피기를 계절의 흐름에 따라 기다리며 얻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 생명 탄생의 고귀함이 나타나있는 작품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을 시각적, 청각적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소쩍새와 천둥, 먹구름 또는 누님같이 생긴 꽃, 노오란 네 꽃 잎 등에 비유하고 있다.

시인은 ‘국화 옆에서’를 창작 과정에 있어 첫 번째 진술에서 그의 내면에 정돈되지 않는 상태로 있던 여러 가지 느낌과 이미지들이 여성 이미지와 함께 얹히기 시작하다가 공덕동 집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며 마침내 형상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3연을 써놓고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시를 완성했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다. 중심인물에 대한 형상화를 먼저 한 후 자연 대상을 연상시킨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먼 젊음의 뒤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 옆에서>

계절의 흐름은 봄에서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이어진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각 계절마다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과 먹구름이 울고, 꽃이 피기 직전인 가을 간밤엔 무서리가 내린다. 하지만 화자는 꽃이 핀다는 기대감과 생명 탄생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마지막 연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3연의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에서는 서정주 시인의 불교적 세계관이 돋보인다. 여성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수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거친 윤회 전생을 거친다. 이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의 화합에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인연설에 기반한다.

생명 현상의 끝없는 되풀이, 생사 초월하는 존재의 연쇄 등 감각적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데에 표현된 것이 봄 소쩍새의 울음과 여름 천둥의 소리이다. 서리 맞은 국화꽃의 노란 색채와 향기는 봄 소쩍새의 피 토하는 울음과 먹구름 속에서 울던 여름의 천둥과 대응함으로써 사물과 사물들이, 서로 다른 감각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 앞 여인'에 대한 시가 존재의 연쇄를 암시하는 자연 질서의 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움과 아쉬움, 젊음의 뒤편길의 험지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은 원숙한 여인은 곧 '가신 이들의 혈떡이든 숨결'로 핀 꽃이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울어 피워낸 연기법의 꽃이다. 이런 상동 관계를 전통 국화 이미지에서 발견한 점이 이 시의 특별한 창의성이다.⁴³⁾

《참고문헌》

서정주, 『국화 옆에서』, 민음사, 1997.

윤재웅, 「서정주 「국화 옆에서」의 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 - 관련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21, pp.121~150.

43) 윤재웅, 「서정주 「국화 옆에서」의 창작 배경에 대한 고찰 - 관련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21, p.133.

서정주의 '귀촉도'
- 서정주의 작품 세계

인문학부 20231048 송문규

‘귀촉도’는 사랑하는 임의 죽음을 노래하는 시. 각 연마다 시적 정황을 바꾸어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연에서는 임의 죽음을 표현하였다. ‘피리 불고’ 가는 길에 ‘진달래 꽃비’라고 묘사한 대목은 호사스러운 상여(喪輿)의 행렬을 표현한다. 이는 슬픔을 억제하기 위한 시적 장치에 불과하다. 2연은 임을 떠나보내면서 시적 화자가 느끼게 된 회한(悔恨)의 정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사무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연은 밤이 늦도록 울어내는 소쩍새의 울음을 그려낸다. 3연에서 소쩍새는 홀로 가신 임과 동일시되고 있다. 죽은 임은 소쩍새가 되어 그 이별을 슬퍼하며 밤새 우는 것이다.

귀촉도는 전통적 정서의 세계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한이 서려 있는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시적 공간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정한의 의미를 극대화했다. 원형적 심상이라고 명명할 만한 요소들이 시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별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서정주는 시에 갖가지 표현 기법과 시적 허용, 시적 상징, 은유, 뛰어난 한국어 어휘, 미완성형 문장과 종교 철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뛰어난 서정시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지만 워낙 뛰어난 언어 감각과 소재의 활용으로 한국 문학계에서 빼 수 없는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울울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銀河)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임아.

-<귀촉도>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20.

미당 서정주의 뛰어난 언어구사

- 서정주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207002 김다운

미당 서정주는 60여 년 동안 시 활동을 통해 그의 넓고, 깊은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 강희근과 최원규는 논문⁴⁴⁾에서 서정주 작품에 나타나는 신라 정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강희근은 서정주 시에서의 신라 정신이 한국적 전통 정서의 재현에 성공해 자신의 시적 공간을 한국 시사에 뚜렷이 위치시켜 놓았다고 평가하면서 서정주의 시가 소재를 앞세운 기존 시들의 방법과는 달리 시와 종교 또는 시와 사상과의 결합을 획득하게 되는 주된 정신이 신라 정신이라고 말했다. 최원규는 서정주가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정신이라는 본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향해야 할 정신적 세계를 서정주가 발견하고 그것을 높게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서정주 시의 중요성은 전근대적 삶의 방식을 근대성과 연결시켜 파악 한 점이다. 시대성, 시대정신을 근대성이라 하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계몽주의라 규정한다면 이 계몽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작가가 서정주였다. 서정주의 시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통해 자아 발견을 이루는 정신적 성장의 과정이며,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역사성을 통합하고 있는 신화적 시간, 수직적 시간의 양상으로 나아간다.⁴⁵⁾ 즉 서정주의 영원은 인간을 지배하고 파멸로 몰아넣으며 끝내 개인을 삼켜 버리는 자연적 시간을 이겨내려는 속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문학사에서 서정주는 시류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보여줌으로써 전통 지향성 획득이 모더니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과 직관, 상상력으로 보여준 서정주의 시간 의식은 영원성이 일상생활 속에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 공간을 잡아냈다. 서정주는 초시간적인 신화적 세계, 원형적 삶의 복원을 통해 복잡한 상황을 꿰뚫고 나갈 에너지를 얻었다. 서정주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극심한 체험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회복하려는 정신적 투쟁과 연관된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제약하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 질서로부터 해방되려는 몸짓으로 보인다.

서정주의 시에는 단순히 현실 세계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승과 저승을 관류하는 '바람'의 인연이 나타나 있고, '善德女王의 말씀' 같은 시에서는 선덕여왕이 현재와 미래 속에 지속되어 나타나는 인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의 시에는 원죄가 있는 곳에 순수한 서정이 숨어 있고, 추함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육성의 몸부림으로부터 부활을 염원하는 창조의 미덕이 있다. 역사적 시간은 그에게 현대의 신화로 치환되고, 그의 어린 시절은 각박한 현대인에게 상상력과 순수를 제공하는 거대한 자연으로 바뀐다. 그의 시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아주 높은 상상력과 환상이 동원된다. 이러한 그의 시적 지향성에는 그의 독특한 시간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의 시는 우리를 일상성의 나르시시즘에서 항상 깨게 만들며 고대적 시간에도, 내세의 신화적 시간에도 들어가게 한다.

서정주의 시에 있어 자연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연은 그의 세 번째 시집 『徐廷柱 詩選(1955, 正音社)』부터 시작해서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그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물질적 차원이 아니다. 또한 서정주는 물질을 물질로서만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존재

44) 최원규, 「서정주 연구」, 『국어국문학』 49,50 합병호, 1970, p.316.

45) Sheldon Norman Grebstein,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Binghamton:Stat Univ. of New York, 1968, p.43.

하는 사물 속에도 혼과 영원성을 부여함으로써 생기와 빛을 부여한다. 한편의 시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나 사고가 그 시인의 내면을 반영한 것이라면 유기체적인 세계관 또는 자연관의 적용은 서정주 시의 해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다.

서정주의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는 재미가 있다. 그의 시에는 온갖 생명들이 등장하고, 사랑 이야기도 많이 쓰여 있다. 이것으로 보면 서정주는 시에서는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고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절실한 인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작품 '다섯 살 때'를 보면 “내가 고독한 자의 맛에 길든 건 다섯 살 때부터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런 걸로 보아, 서정주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박호영, 『서정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손진은, 『서정주 시의 시간과 미학』, 새미, 2003.

이남호,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다』, 열림원, 2003.

최원규, 「서정주 연구」, 『국어국문학』 49,50 합병호, 1970, pp.307~324.

Sheldon Norman Grebstein,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Binghamton:Stat Univ. of New York, 1968.

이상적인 사대부 정신을 가진 사람

- 정극인의 생애

인문학부 20231107 홍예슬

정극인(丁克仁)은 15세기 중후반 문인으로 활동한 사람이자 태종부터 세종까지 총 일곱 명의 왕이 바뀌는 시대에도 살아있었던 인물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태종 1년인 1410년에 7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기도 광주의 두모포리가 출생지로 되어 있지만, 그 장소에 대한 진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해진다.

정치가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다른 계파의 권력을 차단하거나 독점하려는 사대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사대부로서 유가의 이념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그가 성균관에서 대과를 준비한 시절인 1437년에 세종은 흥천사 중건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승려의 비행이 매우 심해지자 태학생을 이끌고 함께 상소문을 올려 이에 대하여 항변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정극인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북도로 귀양을 갔다 풀려난 뒤, 태인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간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를 발판으로 삼아 집 이름과 호 이름을 “불우현”이라고 명명하였다. 불우현 앞 비수천 주변에 송죽을 심고, 향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며 향약계축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리의 교화에 도움을 주었다.

1451년, 임금으로부터 “학문이 뛰어나고 늙도록 과거에 급제 못 한 덕망 있는 선비”를 추천하라는 교지가 내려왔다. 이때 벼슬길에 나아가 10여 년간 관직을 두루 역임했던 정극인이 추천을 받아 다시 벼슬길로 나아간다. 그러나 1470년 70살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관직을 사양하고, 귀향해 후진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썼다. 그 후에 벼슬을 포기하고, 향리의 자제들을 교육한 공로를 성종에게 인정받아 1472년 3품산관을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시조 ‘불우현가’와 경기체가 ‘불우현곡’을 지어 송축했다.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준 인물보다는 문학적인 능력을 보여준 인물이면서 사대부로서 가져야 하는 소양들을 항상 몸에 습관처럼 지니고, 행동하는 인물이다. 백성들의 삶과 목소리 등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 또한 보여준다. 청렴한 삶을 고수하고, 검소하며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던 그는 1481년 8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참고문헌》

박영주, 「가사 작가 인물전 사대부 가사의 선구자, 불우현 정극인」, 『오늘의 가사문학』 3, 고요아침, 2014, pp.66~75.

유옥례, 「不憂軒 丁克仁의 詩歌文學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60~61.

최상은, 「최초의 가사들 조선 가사 문학의 시작, 최초의 은일 가사 <상춘곡>」, 『오늘의 가사문학』 6, 고요 아침, 2015, pp.83~90.

사대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 '상춘곡'(賞春曲) 원문과 해석

국어국문학과 20181045 박요한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칠가 못 미칠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한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못할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알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주인)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어 있고
 錄樣芳草(녹양방초)는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물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물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승)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한디
 閒中眞味(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으란 오늘 하고 浴沂(욕기)란 來日(하세)
 아침에 採山(채산)하고 나조히 釣水(조수)하세
 갓 꺾어 익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뺏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짚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한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느니 桃花(도화)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松間細路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네
 煙霞日輝(연하일휘)는 錦繡(금수)를 재팠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사

功名(공명)도 날 씌우고 富貴(부귀)도 날 씌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외(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누항)에 훗튼 해음 아니 하니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엇지하리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가 못 미칠가?
 세상에 남자 몸이 날 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있어 이 즐거움을 모르는가?
 몇 칸 초가집을 시냇가에 지어두고
 송죽 우거진 곳에 풍월주인 되었구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렸는가?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이니 흥인들 다물소냐
 집안에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고
 거닐며 읊조리니 산속 하루 적적한데
 한가함 속 참맛을 알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답청일랑 오늘하고 욕길랑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남시하세
 갓 꺾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 세며 먹으리라
 봄바람 살짝 불어 푸른 내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붉은 꽃은 옷에 진다

술통이 비엇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아이 시켜 주막에 보내 술 있나 물어보고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모래사장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냇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술술 오솔길에 진달래 부여잡고
 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곳곳에 벌여 있네
 안개놀과 햇살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가난하고 누추해도 허튼 생각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⁴⁶⁾

-<상춘곡(賞春曲)>

<상춘곡>은 정극인이 관료의 삶에서 벗어나 태인으로 내려와 그 삶에 관해 이야기한 작품이다. 시점의 이동에 따른 경물의 변화와 사상의 흐름으로 작품의 서사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흥진”(현실)과 “산림”(이상)이라는 대비되는 공간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화자(정극인)는 “풍월주인”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자연의 대표자로서의 인간”이라는 의식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낀 화자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 바로, “물아일체” 상태 및 “한중 진미”를 자연환경이 빚어 만들어내는 풍경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와 그 상태에 빠지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통해 정서의 평화로움과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인간과 자연을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인간은 자연 일부분이면서 자연이 곧 인간이라는 확장된 의식의 차원이 강호 가도를 꿈꾸는 자연 예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 혼자만의 풍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이웃과 함께 즐기려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위와 같은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답청”·“욕기”·“채산”·“조수”이다. 더불어 “화풍”·“녹수”·“청향”·“낙홍”이 가져다주는 풍경과 향기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술”의 힘을 빌려 거창하거나 수많은 음식이 없어도 영향을 안 받는 모습을 통해 검소하고 소박한 풍경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번째 단락에서 풍경의 모습과 향기 그리고 술을 통해 취한 화자는 술이 없자 어린아이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한 뒤, 미음완보의 상태로 시냇가에 가 술을 먹는다. 화자는 “청류”, “도화”, “무릉”이라는 화자가 꿈꾸는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나 “천춘만락”에 도달하는 마치 신선으로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화자의 느낌을 표현한다….

마지막 다섯 단락에서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해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화자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묘사를 한다. “공명”과 “부귀”는 세속적인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이지만, 화자는 안분지족의 마음으로 단표누향을 실천하는 데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 자연과의 관계를 벗과 같은 관계로 유지하고 안빈낙도의 자세를 지향한다.

사대부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 세계의 동정, 지향하는 태도 등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 자신의 고민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대부가 겪는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영주, 「가사 작가 인물전 사대부 가사의 선구자, 불우헌 정극인」, 『오늘의 가사문학』 3, 고요아침, 2014, pp.66~75.

최상은, 「최초의 가사들 조선 가사 문학의 시작, 최초의 은일 가사 <상춘곡>」, 『오늘의 가사문학』 6, 고요아침, 2015, pp.83~90.

최상은, 「주해 한국명품가사 상춘곡賞春曲」, 『오늘의 가사문학』 31, 고요아침, 2021, pp.198~206.

46) 최상은, 「주해 한국명품가사: 상춘곡賞春曲」, 『오늘의 가사문학』 31, 고요아침, 2021, pp.198-206.

사대부의 가사 문학

- 가사 문학의 특징

인문학부 20231081 장예주

가사 문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가사 문학은 “고려 말에 발생하고 조선 초기 사대부계층에 의해 확고한 문학 양식”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학의 장르인 점도 다른 문학 장르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읍문, 서정, 서사, 교술이라는 네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으로는 4음보(3·4조)의 연속체인 읍문이 동시에 수필적 산문의 성격이라는 가사에서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선 시대를 전기, 후기로 나누었을 때, 가사 문학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주체들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내용 및 작품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조선 전기에서 가사 문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양반 사대부라는 계층이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를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강호 가사이다. 대표적으로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허난설헌의 '규원가'” 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조선 후기에서 가사 문학을 주로 하게 되는 사람들은 평민과 부녀자들이다. 이 시기는 그동안 양반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세계에 대해 노래하는 등 자연과 삶을 동경하는 내용으로 가사 문학이 형성되었지만, 조선 후기의 가사 문학은 내용에 서사와 교술이라는 요소가 추가 및 형식의 장형화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대표 작품으로는 박인로의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김인겸의 기행가사인 '일동장유가',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등이 있으며, 평민 가사로는 '우부가(愚夫歌)', '용부가(傭婦歌)' 등이 있고, 내방 가사로는 '규중행실가', '월한가'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개화기에 만들어지고 발표가 된 양식은 바로 개화 가사라고 불린다. 내용상으로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개항과 문명개화, 진보와 발전 그리고 부국강병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고전 시가의 고유 양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4·4조 또는 3·4조의 자수율 및 분량의 길이로 인한 긴 연형체시가가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

이 개화 가사는 다른 가사와는 달리 “한국시가 사상 최초로 형성된 근대적 양식”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근대성이라는 요인은 기존에 통용이 되었던 공리와는 맞지 않은 점, 직설적인 어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담양군, 「가사문학이란」, 『한국가사문학 DB』, <http://gasa.go.kr>, 2023.03.27.

무성서원 소개

국어국문학과 20198038 PHUNG THI NHUNG



신라 하대에 태산 태수로 오는 최치원을 위하여 지은 곳이 바로 무성서원이다. 그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최치원과 연관을 시킨다. 1696년에 사액서원이 되기도 하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보여준 전라도의 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68년(고종 5)경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훼손(毀撤: 헐어 부수어서 걷어 버림)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⁴⁷⁾이다. 1906년 최익현, 임병찬 등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 최초의 의병인 “병오창의”가 탄생한다.

무성서원은 정극인 작가와 관련성이 있는 장소이다. 정극인은 고현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초로 향약을 지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받은 고현향약을 제작하고 사용한다. 글방(가속)을 만들어 주위의 자제들을 교육하였고, 이것은 송세림에 의해 향학당으로 확장이 되었다. 향학당은 태산사라는 두 곳이 하나로 되면서 탄생한 장소가 바로 무성서원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고현내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풍경을 보며 다양한 문학 작품을 창작하면서 사대부들이 꿈꾸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한다. 대표적으로 상춘곡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향음주례 방식 및 인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고현내 지역에서는 지역의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인물들을 배출시키는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정신도 함께 작용하는 등 정극인이 만들려고 했던 지향점을 잘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2020, pp.255~281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 pp.1~189.

한국관광공사,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관광공사, 2022.

47) 한국관광공사,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관광공사, 2022. 09. 08.

<https://me2.do/FKxg8Kgk>

백제를 노래하다 ‘정읍사’

- ‘정읍사’의 배경 설화

인문학부 20231082 전예진

전라북도 정읍은 매년 가을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든 내장산을 찾아 올 정도로 단풍이 유명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남편을 기다리며 여인의 정절을 대표하는 정읍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정읍사는 현전(現傳)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 가요로 알려져 있으며, 정읍은 전주의 속현(屬縣)으로 고려시대에 향유된 음악과 관련한 가장 권위 있는 기록인 ‘고려사악지’에는 이 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배경 설화를 전한다. 백제시대 정읍에서 행상을 떠난 남편이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행상인의 아내가 산 위 바위에 올라 남편이 향한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을 오르며 혹여 해를 입지나 앓을까 염려하여 고개에 올라 달에 의탁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길 고개를 오른 아내는 망부석이 되어 아직도 그곳에는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손은주, “문학이야기(3) 정읍사”, 생글생글, 2018.02.12.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8020948871>

사진 출처- 양철순, “정읍시,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공모”, 포인트데일리, 2021.07.13.

<https://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48> 검색: 2023.3.25.

여인의 마음이 담긴 ‘정읍사’

- ‘정읍사’ 원문과 해석

인문학부 20231036 박선호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룽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긔야 존 디를 드디올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어느ㅇ | 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룽디리

달아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치게 하시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룽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진 곳을 디딜세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어느 것에다 놓고 계시는가
어기야차 나의 가는 곳에 저물세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룽디리

-<정읍사(井邑詞)>

시조의 3장 6구 형식의 근원을 정읍사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 백제시대부터 구전해 온 민간전승의 가요임과 동시에 유일한 백제 가요이기에 기원 형식으로 찾는 횡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각 연에 있는 후렴구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2연에 해당하는 후강엔 ‘어긔야 어강도리’ 1구뿐이고, 음악적인 악조인 소엽에 해당하는 ‘아으 다룽디리’가 없다. 없는 이유는 온전하다는 속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음악적으로 후강엔 ‘아으 다룽디리’가 있어야 완전한 가요가 된다. 시가 형태로 볼 때 정읍사가 백제가요로 인정된다. 허나 오랜 세월 고려속요와 함께 불려온 시기가 있기에 고려의 성격이 묻어나는 가요이기도 하다. 모든 고려가요가 각 연마다 꼭 같은 후렴을 지닌다는 이유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후강에서의 ‘아으 다룽디리’는 구전되는 동안 탈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연의 주된 내용은 아내의 서정 표출과 더불어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도모하는 고대인의 소박한 발원이다. 제2연의 주된 내용은 남편의 행방을 애태우며 불안감과 의문점을 내세우는 가냘픈 여심이 드러난다. 심리적 갈등을 실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3연의 주된 내용은 남편의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절정에 이르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마음이 부각된다. ‘노코시라’의 해석도 ‘(마음을)놓으시리라’ 또는 ‘놓고 계신가요’로 보기도 하고, ‘놓으시라, 놓으십시오’ 또는 ‘놓고 계시리라(놓고 계셨으면 좋겠다, 놓고 계십시오)’, 심지어는 ‘놓고 계신 가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내가논디’는 ‘내가 가는 곳(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등으로 해석하면서도 「정읍사」전편의 문맥으로 보아 ‘남편의 오는 길’이어야 할 것이 ‘내가 가는 길’로 된 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부부 일심동체설까지 나오게 되었으나, 이 점을 해결하고자 한 풀이가 ‘내이 곧, 내사람 가는 길’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내가논디’는 어디까지나 ‘내가 가는 곳’이어야 하나, 그것이 오가는 길이 아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 ‘내 사랑 가는 곳’, 즉

‘사랑하는 님, 남편의 마음’으로 풀이된다. ‘점그를세라’는 ‘저물을세라’ 또는 ‘저물게 할세라’, 곧 ‘저물게 될세라’, 그리고 ‘잠그랄세라’, ‘빠질세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점글세라’와는 달리 ‘점그를세라’는 ‘저물게 할세라’, 곧 사실상 ‘저물게 될세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내가논디’를 ‘내가 살아가는 곳’으로 보고, ‘점그를세라’는 서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제2연의 ‘즌디랄 드디올세라’와 함께 어법상의 의구형은 의구형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읍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0735> 검색: 2023.3.27.

후대에게 전해지는 ‘정읍사’ -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191006 고진현

<정읍사>는 백제가 망하기 이전 창작되어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궁중에서 향유되다가, 800년이 지난 15세기 말에 정착되었으며 궁중 연희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연행되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며 적층의 과정들을 통해 구축되었다. 남편에 향한 아내의 지고지순한 정절을 드러내며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랫말이 기다림과 불안이라는 인간 본연의 문제와 정서를 담고 있어 보편적인 경험의 기본 모티브가 시간을 초월해 인간 보편적 감정을 자극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서를 기본 바탕으로 설정하여 현대시·현대소설·뮤지컬 등 여러 문화적인 콘텐츠로 발전하게 해준 가능성 등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당시 시대를 반추할 수 있는 거울로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정읍사>는 단순히 고대가요로 가창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 성별과 계급을 초월하여 가창 되었으며 보편적인 정서나 작가의 주제적 변이를 통해 문학적인 콘텐츠로서도 그 가치와 활용을 높이 평가받게 했다. 이런 다양한 장르로의 모색을 통하여 현재 까지도 대중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현실이나 시대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향하는 바를 성실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염은열, 「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시가 해석의 다양성 -<정읍사>를 사례로-」, 『韓國 詩歌研究』 24, 2008, pp.233~260.
최홍원, 「고전문학생활사의 구도와 <정읍사>의 탐구 내용」, 『우리文學研究』 64, 2019, pp.333~372.
하경숙, 「<정읍사>의 후대적 전승과 변용 양상」, 『東洋古典研究』 47, 2012, pp.75~107.

최명희의 흔적을 따라서

- 최명희의 생애

인문학부 20231038 박이삭



최명희는 1947년 10월 10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전주 풍남초등학교, 전주 사범학교 부설 중학교, 그리고 전북 기전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도봉마을은 그의 본관 식녕 최씨가 500년 동안 대대로 살고 있는 동네로써 최명희의 대표작 『혼불』의 주 배경 마을로 등장하고 있다. 최명희가 전북의 상징적인 소설가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전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점이 최명희의 글과 더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최명희는 교사 활동과 단편소설 작업을 병행하며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쓰러지는 빛」이 당선되어 문단에 정식으로 기재되었고, 1981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전에서 『혼불』 제1부가 당선되었다. 그 후 작가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 보성여자고등학교 교사직을 사임하였으며 미완성 장편 「제망매가 祭亡妹歌」를 연재하다가 『혼불』 집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두 중단하였다.

『혼불』은 최명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쓴 장편소설로 1981년을 시작으로 1995년 10월까지 약 17년의 집필 기간과 12,000여 장의 분량으로 국내 월간지에서 사상 최장기 연재 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다.⁴⁸⁾ 하지만 이러한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5부 이후를 구상하던 중에 지병인 암이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집필하지 못하고 운명하였다. 그의 시신은 덕진동 '최명희 문학공원'으로 옮겨졌으며, 미완성된 소설은 <신동아> 연재 부분과 5부 구상 자료가 간행되어 최종적으로 1996년 12월에 전 5부 10권으로 한길사에서 출간하였다.⁴⁹⁾

최명희의 생애를 돌아볼 때 『혼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명희의 일생을 바친 작품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사 때부터 시작하여 생을 마감하기까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혼을 발휘한 최명희는 전북대학교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혼불』 또한 가치를 인정받아 단재상(문학부문)·세종문화상·호암상(예술부문)·여성동아대상·전북애향대상 등을 수상했다. 『혼불』은 최명희의 대표작이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빛이다. 이 작품이야말로 탈식민주의를 구현한 실체이면서 한국적인 창작방법을 이상적으로 실현해 보인 민족 문학의 전범이다. 작가 최명희는 이 작품과 함께 한국 문단의 빛나는 위치에 의연하게 자리하고 있다.⁵⁰⁾

《참고문헌》

김용악, 「최명희 [혼불]의 배경 및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혼불 (魂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898>

48) 김용악, 「최명희 [혼불]의 배경 및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6-7.

49)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혼불 (魂一)』.

50)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235.

소설을 통해 알아가는 『혼불』의 배경

인문학부 20231067 이성민

첫 번째로 짚을 『혼불』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 향촌 사회의 모습이다.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는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향촌 사회에서 강인하게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은 한국의 역사에 가장 커다란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외침을 당한 적이 있으나 식민통치를 받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⁵¹⁾ 소설에서 일제 강점기에 향촌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전통 또는 전통의식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⁵²⁾ 이는 소설에서 발췌한 글을 통해 확인해보자.

양반 양반 허지 마시겨, 대대손손 영화 누린 양반이면 멋 한다냐. 인자는 너나없이 창씨 다 해 부리고, 왜놈들 시상이 된 지가 벌써 몇 십 년인디, 무신 다 떨어진 양반이여? 천지가 다 개명을 허는 판에.⁵³⁾

1910년 청암부인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던 청호저수지 공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달을 때, 불행하게도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고 말았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당시 모든 한국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또한, 『혼불』에는 일제 강점 이후 천하가 크게 변하여 전통적인 신분질서가 무너졌으며 평민이나 천민 출신도 이제 양반이 되는 세상 즉, 개명천지가 되었다고 여긴 듯한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⁵⁵⁾

지금은 세상이 달라, 이제 두고 보아. 앞으로는 재산 있는 사람이 양반이 될 것이야. 돈이 양반이란 말이지.⁵⁶⁾

『혼불』의 등장인물 중 양반인 이기표가 한 말이다. 그는 영민하여 세상의 변화를 알아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았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기회는 양반과 평민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다만 각자의 삶과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강등될 수도 있었다.

두 번째로 짚을 『혼불』의 배경은 ‘의식주에 필요한 농사의 중요성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기 깃발을 호기롭게 펴리며(중략) 사람들은 그 날씨의 화창함과 울리는 소구·장구 소리에 진심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이 부디 순탄하길 빌었었다.⁵⁷⁾

일제 강점기가 되어 나라가 국권을 상실했을 때지만 농사는 중요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51) 혼불기념사업회,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p.292.

52) 위의 책, p.293.

53) 최명희, 『혼불』 3권, 한길사, 1996, p.130.

54) 앞의 책, p.293.

55) 위의 책, p.296.

56) 최명희, 『혼불』 1권, 한길사, 1996, p.118.

57) 위의 책, p.116.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신분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의식주와 직결된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라는 농사의 기반을 빼앗아 간 것만 해도 그렇다. 박경화(2009)의 「‘혼불’ 배경 및 인물 연구」에서는 ‘당시 한국민의 빈궁이 일제의 만행과 횡포가 주요 원인이라고’⁵⁸⁾ 해석했을 정도로 농사와 그 기반인 토지가 그 시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했다. 소설에선 이 부분에 주목해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냈다.

《참고문헌》

- 박경화, 「‘혼불’ 배경 및 인물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혼불기념사업회,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58) 박경화, 「‘혼불’ 배경 및 인물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26.

최명희 문학 속에 담긴 ‘삶’

- 최명희 『혼불』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211047 심현진

최명희의 『혼불』은 1930년대 전북 남원의 몰락해 가는 양반가의 며느리 3대(代) 이야기를 다룬 원고지 1만 2,000장 분량의 대하소설이다. 최명희는 이 『혼불』의 완간 4개월을 앞두고 작고했는데, 그녀의 타계 이후 본격적인 『혼불』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매우 상반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문학평론가가 『혼불』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혼불』이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간으로 보아 『혼불』을 대하소설이라 하기엔 옳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평론가는 『혼불』에 소설이라는 표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명희는 필생의大作인 『혼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펴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⁵⁹⁾ 그러한 최명희의 『혼불』에 담긴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새로운 문체를 정립했다는 것이다. 『혼불』에 드러난 문장의 수월성이나 문체 미학적인 면은 이미 몇 평론가들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다.⁶⁰⁾ 『혼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각각의 문장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문장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그 느낌에 깊게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혼불』의 문장들은 황홀하고 뚜렷하며 정제된 느낌을 주기에 『혼불』의 문체적인 중요성은 연구되기에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그의 소설 문장은 우선 재래의 작가들이 흔히 활용해 온 평면적인 사물의 묘사나 스토리 중심 서사의 문법적인 틀을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⁶¹⁾

두 번째는 민족 문학의 정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작가 최명희는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한 『혼불』로써, 한 세기 안팎의 나이트레를 지닌 한국문학에 새로운 민족 문학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혼불』을 통해서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분단 현실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물질문화와 군사 문화들에 의해 외면된 채 내쳐진 우리 문화의 본체를 되찾아 복원시켰다. 이것이 최명희의 『혼불』이 올바른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정립한 문학사적인 기념탑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이다.⁶²⁾

세 번째는 인류학자들이 쓴 민족지에 버금간다는 점이다. 『혼불』은 20세기 전반기 한국 민족문화의 실상과 이때까지 축적된 전승 문화의 풍속을 잘 드러낸 훌륭한 민족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작가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광범위하게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차례 현지를 답사하였으며 나아가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와 풍속 등을 꼼꼼하게 복원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물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혼불』이 민족지적인 혹은 민족지적 소설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⁶³⁾

결론적으로 『혼불』은 작가가 집필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소설이다. 그가 온몸으로 뛰고 겪으며 생생하게 복원하고자 했던 전통기 한국사회의 문화와 매안마을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의 뿌리 깊은 한 단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과서이다.⁶⁴⁾ 이러한 이유로 최명희의 『혼불』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빛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문단의 빛나는 위치에 자리 잡은 작가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문학사적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혼불 기념사업회,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59)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213.

60) 위의 책, p.214.

61) 위의 책, p.215.

62) 위의 책, p.234.

63) 혼불기념사업회, 『혼불과 전통문화』, 신아출판사, 2003, pp.255-256.

64) 위의 책, p.313.

민중의 서사, ‘춘향전’

- ‘춘향전’의 줄거리와 관련설화, ‘춘향전’의 문학사적 의의

국어국문학과 20211051 엄서진

춘향전의 주요 인물은 세 명이 있다. 이몽룡은 미숙하고 철없는 책방 도령에서, 춘향과의 이별 후에는 의무에 충실하고 신의 있는 인물로 성장한다. 성춘향은 월매라는 기생의 딸로, 순종적인 여인에서 주체적이고 인내심 강한 여성으로 성장한다. 변사또는 남원 고을에 새로운 사또로 부임한 인물이며 부임 첫날부터 기생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못된 탐관오리이다.

조선 숙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 전라도 남원 땅에 월매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다. 월매는 딸 춘향을 낳아 귀하게 키웠다. 세월이 흘러 춘향이 열여섯이 되던 해 5월 5일 단옷날 이몽룡은 방자를 데리고 광한루 나들이에 나갔다가 그네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은 높은 벼슬을 갖게 된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된다. 몽룡은 어쩔 수 없이 춘향에게 이별을 알리게 되었고 슬퍼하는 춘향에게 장원 급제하여 데려가겠노라 약속만 남긴 채 먼 길을 떠났다. 그 후 남원 고을에 새로운 사또로 변학도가 부임했다. 변학도는 부임 첫날부터 고을의 기생에게만 관심을 갖는 못된 탐관오리였다. 특히 미모가 뛰어나다고 소문난 춘향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춘향을 관아로 데려오게 하였다. 변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요구를 거절한 춘향은 끝내 목에 칼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춘향과 헤어져 한양으로 떠난 몽룡은 마침내 장원급제하고 전라도 지역의 암행어사가 되었다.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던 중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힌 춘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변 사또의 생일 잔치날,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남원 관아에 고을의 수령들이 모였다. 잔치의 흥이 오를 무렵 허름한 차림으로 잔치에 온 이몽룡은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시를 지었다. 이때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고 요란한 외침과 함께 암행어사가 등장했다. 암행어사는 사또의 관직을 박탈하고 억울한 사람은 옥에서 풀어주게 된다. 그렇게 극적으로 재회한 춘향과 몽룡, 마침내 춘향 모녀와 향단은 이몽룡을 따라 함께 한양으로 가게 되었고 임금은 이몽룡에게 이조참의 대사성, 춘향에게는 정렬부인의 칭호를 내려 주었다. 그 뒤로 춘향과 몽룡은 슬하에 자식을 여럿 두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⁶⁵⁾

‘춘향전’의 근원 설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가장 근접한 설화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열녀 설화와 암행어사 설화, 신원 설화 세 가지이다. 열녀 설화는 『삼국사기』열전의 ‘설씨녀’, ‘도미처’ 등에서 그 원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종래의 열녀 설화는 극단적인 정절 관념을 고집하면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춘향전은 정절 관념을 유지하면서도 그 결말이 행복하게 맺어져 기존의 열녀 설화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대체로 여성의 수절과 정절을 강조했던 양반들의 유교적 의식과 현실적인 삶의 문제나 정서에 더 긍정적이었던 서민의식이 타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암행어사 설화는 노진, 김우항, 박문수, 성이성 설화가 대표적인데 대부분 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폭정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용기와 지략으로 벌 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암행어사 설화는 ‘춘향전’ 가운데서도 주로 후반부에 관련되는데 지방관리들의 횡포와 수탈로 늘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바람이 암행어사 출두라는 서사적 장치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伸冤說話 (신원 설화)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원통한 고통을 겪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다룬 설화로 아랑 설화, 향량 설화, 심우경 설화 등이 전해져 오고 있다. ‘춘향전’에서는 변학도의 야욕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춘향이의 고난을 구원해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젊은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시련, 시련의 극복이라는 <춘향전>의

65) 정하영, 『춘향전』, 신구문화사, 2006, pp.24~31.

66) 박태상, 심치열, 『고전소설강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pp.522~538.

중심 서사 가운데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사실상 ‘춘향전’은 어느 하나의 배경 설화만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춘향전’내에는 어느 하나의 배경 설화나 원인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 요소들은 각각 여러 배경 설화들로부터 그 기본 뼈대를 추출해 ‘춘향전’의 구도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춘향전은 계층 화합의 국민 문학이다. 춘향전에는 서민의식과 양반의식이 함께 만나고 양자가 벌이는 갈등과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등장인물도 서민뿐만 아니라 중인, 양반 등 당시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독자층도 남녀노소, 상하귀천의 모든 계층에 걸쳐 있다.

춘향전은 민족성이 강한 토속적 문학이다. 대부분의 고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춘향전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현실성이 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일상적인 토속어와 방언을 실감나게 사용하고, 한국인 특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다.

춘향전은 춘향전 근원설화를 소재의 원천으로 하여 300년 넘게 진화를 거듭해왔다. 현대에도 소설, 연극, 마당극 등으로 재창조의 길을 걷고 있는 미완의 작품으로, 개방문학/성장문학의 성격을 보인다.

춘향전은 통합 예술의 문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작품 속에는 설화, 시조, 가사, 민요, 한시, 서간문, 제문 등이 다양하게 삽입되어 있어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포용한 통합적 문학의 성격을 띤다. 현재에도 판소리, 창극, 마당놀이, 연극, 드라마,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대중에게 선보여지고 있다.

대개의 고전소설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가문에 대해 족보를 장황하게 제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춘향전의 시작은 춘향이의 모 월매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절나도 남원부의 월미라 하난 기성이 잇스되 삼남의 명기로서 일직 퇴기허야 성가라 흐는 양반을
다리고 세월을 보니되 연장사순의 당하야 일점 허룩이 업서 일노 한이 되야 장탄슈심의 병이 되것
구나

고전소설 중 여성이 주인공인 심청전에서도 여주인공이 소개될 때 아버지와 같은 남자 쪽 계보를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쪽 계보를 소개하지는 않는다. 또한 아버지 성참판이 고작 월매에 부수적 인물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성가라 흐는 양반을 다리고 세월을 보니되”라고 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주도권도 성참판이 아니라 월매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파격적이다. 이는 유교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일이다.⁶⁷⁾

춘향전의 소설사적 의의로는 이 외에도 세태소설, 적층문학,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강석주, 「로미오와 줄리엣과 춘향전의 사랑에 관한 소고」, 『서강영문학』, 서강영문학회, 2000, pp.1~22.

박태상, 손종흠, 『국문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박태상, 심치열, 『고전소설강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설성경, 「춘향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10, pp.194~230.

정하영, 『춘향전』, 신구문화사, 2006.

67) 박태상, 손종흠, 『국문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pp.426~459.

전 계층을 아우르는 사랑가

- '춘향전'과 '춘향가'의 관계

인문학부 20231112 황대중

우리의 고전으로 가장 유명한 '춘향전'은 원래 판소리로 불리우다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 중의 하나이다. 소설의 이본이 무려 120여종에 이를 만큼 다양한데 각 이본의 기본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그 세부묘사는 각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본으로는 경판본 4종, 완판본 3종, 안성판본 1종이 있고 사본으로는 조선 영조 때인 1754년 쓰인 유진한의 한시 '춘향가'를 비롯해서 한문본 5종, 한글본 30여 종,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번역된 번역본 16종이 있다.

시대와 양식을 달리해도 대중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는 '춘향전'의 열려진 개방성은 창극, 신소설, 현대소설, 연극,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소재가 되어왔다. '춘향전'의 문학적 작품성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숙종 때에 창작된 '구운몽'에 비해 떨어지나 춘향과 몽룡의 계급을 초월한 사랑이라든가, 탐관오리를 멸하는 몽룡의 어사출토 장면 등이 민중들의 사랑을 받은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 또 권력계층의 대표적 인물인 변사또의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절을 지킨 춘향의 열녀적 행실이 당대의 윤리적 풍토와 결합 되어 하나의 전범이 됨으로써 오랫동안 민간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써 '춘향전' 이야기를 다시 판소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음악성이 뛰어나고 사설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소리 '춘향가'를 완창하는 데는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이 걸린다. 현재 전해지는 것 중에서는 송만갑, 정응민, 김창환의 판소리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창자에 따라 약간씩 짜임새는 다르지만 대체로 초앞, 광한루 경치, 책방독서, 백년가약, 이별가, 신연맞이, 기생점고, 십장가, 옥중가, 과거장, 어사행장, 춘향편지, 옥중상봉, 어사출토, 뒤풀이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가창되고 있는 여러 창자들의 '춘향가'에는 문자 텍스트라 할 수 있는 완판 '춘향전'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⁶⁸⁾ 이와 같이 춘향전과 춘향가의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그리고 고전소설인 춘향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었고 판소리인 춘향가는 글을 읽지 못하거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옥, 『증보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6.

김동옥, 「춘향전연구는 어디까지 왔나」, 『창작과 비평』, 1976, pp.189~212.

김동옥·김태준·설성경, 『춘향전비교연구』, 삼영사.

이상택, 「춘향전연구사 반성」, 『한국학보』 5, 1976, pp.205~21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05.

6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pp.575~589.

고전의 현대화, 성장하는 춘향

-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

인문학부 20231054 오한별

춘향전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현대까지도 끊임없이 재창작되고 있다. 춘향전에는 신분 차이, 선과 악, 만남과 헤어짐 등 다양한 대립 구도와 다면적인 인물들이 공존한다.⁶⁹⁾ 이러한 춘향전의 특성상 독자의 가치관과 시대상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춘향전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희곡이나 영화는 물론이고 드라마, 대중가요, 상업가요에서도 볼 수 있다.

춘향전은 춘향과 몽룡의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춘향의 정절,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의 저항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석되어왔다. 춘향이 몽룡을 위해 수절하고 신관사또에게 저항한 행위는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강조한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서 춘향전은 열악한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쟁취하고자 하는 춘향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감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의 춘향을 적극적이고 당찬 현대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춘향전에 나타나는 춘향의 욕망 또한 보편적인 대중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기에 각 시대상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여염집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춘향의 욕망은 당시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억압을 정절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⁷⁰⁾ 춘향전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기생이었던 춘향이 정렬부인이 되며 대중의 욕망을 실현 시켜주는 판타지적 요소로 현대까지도 오래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춘향전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작되고 여러 모습으로 오마주 되고 있다. 춘향전에는 신분 차이, 선과 악, 만남과 헤어짐 등 다양한 대립 구도와 다면적인 인물들이 공존한다. 이러한 춘향전의 특성상 독자의 가치관과 시대상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희곡이나 영화는 물론, 드라마, 대중가요, 상업광고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특집 드라마 '향단전'이 있다. '향단전'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기존 춘향전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이 아닌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새로운 관점에서 춘향전을 해석해 변이를 보여준다. 또 다른 작품으로 드라마 '쾌걸 춘향'에서는 엉뚱하고 적극적인 춘향과 사랑 앞에서 약한 단순 무식한 순정파 청년 이몽룡의 사랑을 유쾌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서는 춘향전의 공통된 주제인 사랑을 비롯해 현실비판, 민중의식 등 개별적인 주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춘향이 기생 신분으로서 몽룡에게 순종한 것이 춘향의 자주성이나 주체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수한 애정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작자 미상으로 전해져 내려온 춘향전은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본질로 삼는다. 이렇듯 춘향전은 창작자와 소비자의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적 창작물로, 현대까지도 민족의 정서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춘향전의 독자들은 춘향전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낭만적 결연에서 오는 판타지를, 한편으로는 적대자를 물리치는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소설이 상업적으로 유통되었던 조선 후기에 춘향전은 당대 향유층에게 상하층의 담론을 표출함으로써 이후 대중

69) 김태준, 「판소리 관계 명논문 순례 :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 『판소리연구』, 판소리학회, 1992, pp.373~387.

70)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10, pp.193~201.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춘향전 인물의 욕망은 결국 춘향전 독자의 욕망 반영이며, 현대 대중의 욕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김태준, 「판소리 관계 명논문 순례 :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 『판소리연구』, 판소리학회, 1992, pp.373~382.

장순희,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10, pp.193~230.